

을 많이 서 있어 40원을 주고 복사를 하려 했더니 그냥 받지 않고 해주었다.

사본 2장을 부회장(최수미)에게 맡기고 전민련 이동진씨를 만나러 갔다. 그래서 함께 명성으로 가서 서준식씨가 원본을 쥐도 되나 해서 복사해 줬으니 가지 시라 하고 기자회견을 약속하고 학교로 올라왔다.

5월 21일 기자회견 때 원본을 건네받고 사진을 찍고 회견을 마치고 이석태 변호사 전화번호를 적어두고 의논할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 했다. 그후 학교로 올라와서 부회장에게 건네받고 하나는 학보사에 주고 하나는 10일날 검사님께 드렸다.

2. 6월 7일 소환장이 와서 8일날 이석태 변호사님을 명성문화관에서 만났다.

사실 있었던 일을 모두 얘기했더니 변호사님은 검찰측에 가져갈 메모지 있냐고 물으셨고 나는 회견 전에 복사해 둔 메모지가 있다 말했다. 변호사님은 별 무리가 없고 그렇다면 원본은 21일 기자회견 후에 건네줬다고 하라 했다. 나는 변호사님 말씀이 내가 미리 사본을 20일날 복사해줬기 때문이라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술했다. 그 자리에는 기획부장 민수진도 함께 있었다.

3. 나는 내가 제시한 이 메모가 누구의 글씨인지에 대하여 검사의 설명만을 들었는데, 검사가 보여 준 김기설이 누나에게 선물한 책 속표지의 글씨 김기설의 주민등록본실신고서 김기설의 이력서 김기설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 강기훈의 자술서, 대학노트, 회의록의 필적들과 비교, 검사가 강기훈의 글씨라고 보여 준 필적과는 같은 것 같다.

따라서 검사는 김기설 메모가 5/20 전 원본, 5/20 후 사본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겠다. 다만 4/18부터의 우리가 증언한 얘기는 사실이다.

1991. 6. 13
이보령

▣자료 가-1-96 (수사기록 603)

- 4/18
 - 총학실에서 모여 버스편으로 기독교회관으로 감.
 - 서준식씨 차림은 잠바차림. 동우문제 발생배경과 지금까지의 상황.
 - 김기설씨 옷차림은 낡은 청바지에 아이보리색(?) 잠바에 마른 형.
 - 모금 후 문익환 목사님 부인되시는 분이 만원짜리를 냈다 하여 기억함.
 - 결의문 - 동우문제에 동우학우들을 지지.
 - 귀빈다방 - 김기설, 서준식, 보령(나), 수미, 수진
 - 전민련 - 걸어서 감.
- 전민련에서 나와서 부회장(수미) 집에 가고, 나와 수진, 기설 같이 전철탐.

5/20
학교로 연락이 옴 → 성당 → 원본(전민련에서 복사) → 원본 가지고 지숙(문화부장 신문사) 함께 올라와서 학생회관에 있는 복사실에서(복사함).

5/21
아메리카나에서 만나(수진, 지숙-취재차) 명동성당으로 기자회견 하러감. 기자회견하고 원본 서준식씨 줌.

1991. 6. 13.
이보령

▣자료 가-1-97 (수사기록 604~614)

자술서

본 적 [redacted]
 주 소 " " " " "
 직 업 학 생 (승의여전 총학생회 기획부장, 도서관학과 2)
 성 명 민수진
 주민등록번호 [redacted]

전화번호 (0344) 975-1017

1. 김기설, 서준식, 강기훈 등과의 관계

4월 17일날 총학실로 전민련이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는데 편집부장(김선영)이 받아서 칠판에 흰 백묵으로 메모를 남겼다.

내용은 4월 18일날 속초 동우전문대 사건을 주제로 하는 목요일예배가 있으니 전문대 차원에서 와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다.

속초 동우전문대의 학원비리와 학원폭력에 맞서서 분신한 정연석 학생과 민주학생들이 학교와 싸우는 싸움을 말한다.

그래서 4월 18일날 학교에서 버스로 출발하여 6시 조금 넘어 기독교 회관에 도착했다. 2층에 있는 예배 보는 장소에 올라가니 어떤 한 남자가 문에 있었다. 그때 갔던 사람은 이보령(문예창작과 2), 최수미(도서관과 1), 민수진(도서관과 2)이었다.

문에서 있던 남자(김기설)에게 다가가 승의여전에서 왔다고 했더니 자리 안내를 해주고 우리 셋은 자리 중간 정도에 앉았다. 김기설씨의 옷차림은 베이직 색이나 하얀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고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었다. 안경도 썼는데 까만테였다. 예배보는 사람의 인원은 우리를 빼고 많아야 15명 정도였다.

예배 내용은 동우전문대 학원폭력을 규탄하는 내용과 분신한 정연석 학생의 건강을 담은 것으로 1부에는 목사님의 설교가 있었고, 2부에는 서준식씨의 경과보고 형식의 발표가 있었다. 서준식씨의 옷차림은 기억은 안나지만 까만테 안경을 쓴 거 같다.

서준식씨의 경과보고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이보령씨가 앞에 나가서 결의다짐, 그러니까 동우전문대 민주학생들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글을 읽었고 그동안 최수미씨가 모금통을 가지고 모금을 했다. 모금한 것은 우리가 준비한 게 하나라 김기설씨가 예배 도중에 계속 들락들락 거리면서 모금운동에 관한 얘기와 결의다짐 발표하는 얘기를 계속했었다. 모금했던 수미가 모금하는 도중에 문익환 목사님 부인이 와서 10,000원을 내셨다고 예배가 끝난 후 농담식으로 얘기했던 게 기억나고 모금을 끝으로 예배가 끝난 것 같다.

예배가 끝나고 김기설, 서준식씨와 문밖에서 만나

서 서로 인사하고 커피 사주신다고 하시면서 그 건물 지하에 있는 귀빈다방이라는 곳으로 같이 내려갔다.

강기훈씨는 TV에서 얼굴을 처음 봤고 5월 21일날 실물을 봤다. 금테 아니면 은테 안경을 끼고 있었고 기자회견 때 내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기자회견에 서준식씨의 소개로 서로 인사했던 것이 강기훈씨의 관계의 전부다.

1. 메모지 고부받는 경위

예배가 끝나고 김기설, 서준식씨와 문밖에서 만나 인사하고 커피 사주신다고 하시면서 지하 귀빈다방으로 내려갔다. 흔히 볼 수 있는 다방이었고 내려간 사람은 5명이었다. 자리를 잡고 앉아서 우리는 커피를 마신 거 같고 서준식씨는 우유, 김기설씨는 모르겠다. 거기 가서 서준식씨가 전민련 사회국 부장이라고 그러면서 이름을 가르쳐주었고 서로 인사했다.

김기설씨가 내려올 때 예배에서 모금한 모금통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을 뜯어서 액수를 헤아려보니 36,800원이었고 그것을 김기설씨가 서준식씨에게 드리자 서준식씨가 농담조로 빗을 내서 내가 300,000원을 동우에 보냈으니 이 돈은 내돈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안주머니에 넣었던 기억이 나고 또 서준식씨가 김기설씨에게 액수를 적으라고 해서 그 당시 까만색깔의 오래된 가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방에서 인지 안주머니선지 잘 기억은 안나지만 수첩을 꺼내어 까만색 필기도구로 그 액수를 적어 넣었다. 수첩에 적었던 내용은 '4/18 목요일예배헌금' 그 뒤에다가 36,800원이라는 금액이었다. 그리고 승의여전 총학생회 직통전화번호를 물어보아서 보령이가 가르쳐 준 걸로 기억한다. 김기설씨가 그 자리에서 직통전화 번호(752-7828)를 수첩 전화번호를 같은 필기도구로 쓴 것으로 기억된다.

또 보령이가 동우전문대 지금의 상황을 물어봤고 서준식씨가 무엇이라고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사실은 오늘 동우형들이 올라오기로 했는데 자금이 없어서 못왔다는 얘기를 듣고 자금 얘기를 하다가 김기설씨가 모금운동 얘기를 꺼냈고 집회장소와 일정을 가르쳐줄 테니 모금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서로 오고갔다.

이야기가 다 끝나고 사무실도 구경하고 419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갈겸 전민련 사무실에 가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모두 다방을 나와 밖으로 나왔다. 서준식씨는 딱 데 갈 곳이 있다고 해서 인사만 하고 헤어졌는데 어떤 철야농성장으로 간다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 수미, 보령, 김기철씨 그렇게 4명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10분-15분 정도 걸어서 전민련 사무실에 갔다.

그 이야기 내용은 지금 잘 기억이 안나지만 당사, 당사인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접거해서 감방갔다든 일, 공장에서 일하다가 금방 나왔다는 얘기 등은 기억난다. 그날 저녁 8시 20분쯤 전민련 사무실에 도착했고 위치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어떤 건물 4층이나 5층이었다. 사무실안에는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있었는데 신경쓰지 않아서 옷차림이라든가 생김새는 기억이 잘 안난다. 다만 남자 2명이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 같다. 우리 셋은 사무실 구경을 하고 자료를 꺼내보고 있었고 김기철씨는 우리가 부탁한 419 자료를 찾으라고 분주하게 돌아다녔는데 결국은 거기 있던 여자분의 자료를 우리에게 주었다.

또 계속 얘기했던 모금운동을 위한 집회장소와 일정을 우리에게 준다며 책상에 있던 백지에 수첩을 꺼내 일정을 배껴 썼다. 다 쓰고 나서 '이것은 가일정이 라고 바뀔 수가 있다' 라고 설명해 주었고 보령이가 그것을 받아서 접어서 주머니에 넣은 것 같다. 펜의 색깔은 검정색 종류의 볼펜이나 수성펜으로 기억된다. 필체는 흘려 쓴 글씨고 잘못 쓰는 글씨체로 기억한다.

일이 다 끝난 후 사무실을 떠나서 보령이와 김기철씨가 같이 걷고 수미와 내가 걸어다가 수미와는 버스정류장인가는 기억이 잘 안나지만 일찍 헤어지고 나, 보령, 김기철씨 셋이는 명동 방향으로 향하는 지하철을 타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 어쨌든 김기철씨는 우리가 내리려는 정류장 바로 전이나 그 전전에서 내렸고 이것이 김기철씨를 본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1. 기자회견한 경위

5월 20일 전민련에서 우리 학교 신문사에 전화가 왔다고 한다. 김기철씨가 우리 학교 신문에 원고를 썼

다고 하는데 혹시 자필로 된 원고가 있느냐는 전화였다는 것이다.

이 전화를 누가 받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신문사 편집장인 김지연씨가 학생회실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이 소리를 듣고 우리는 4월 18일날 메모 받은 것이 생각이 나서 신문사 편집장에게 말했다. 편집장은 당시 메모가 있는 줄 몰랐을 것이다. 그것을 전민련에 연락을 해서 이보령과 학보사 문화부장 이지숙이 함께 명동성당으로 메모지를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다. 5월 20일날 6시가 넘어서 보령이가 학생회실에 왔는데 5월 21일 2시에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는 소리를 들었다.

5월 21일 12시 조금 넘어서 보령이가 지숙이를 만나서 같이 명동으로 갔다. 명동성당에서 밥을 전민련 관계자란 사람과 먹고 강기훈씨를 만나서 인사를 하고 2시 조금 넘어서 기자회견을 했다. 보령이가 메모지를 받은 경위 같은 걸 얘기했고 나는 옆에 앉아 있었다. 기자회견을 끝나고 메모지를 서준식씨에게 준 것 같다.

1991년 6월 13일
민수진

이 (21)

"기자회견 장황히 끝이내리"

약 2시 25분쯤 명동성당

"기자회견 시기가 연기내리"

약 11시 25분쯤 명동성당

24. (수) (21)

명동성당 분대아 김, 모친까지 끝이내리.

약 6시 (명동성당)

명동성당 / 7월 11일 기연내리

연세대 (21기회)

26. (수)

반동일제 북방 정황 기연내리

대명정관

▣자료 가-1-98 (수사기록 615~620)

자술서

본적 충남
현주소 경기도

성명 최수미 전화 809-9959
주민등록번호

- 1. 가족사항
할아버지 최태약
아버지 최기성 교사
어머니 양승애
큰언니 최경미(결혼했음)
오빠 최광용 대학원생
작은언니 최선미 피아노학원 강사

- 1. 학력
출신고 ; 충남 태안고등학교
현재 승의여자전문대학 도서관학과 2학년

- 1. 학내활동
총학생회 부회장

- 1. 운동권과의 관련성
없음.

1. 서준식, 김기설씨와 관계

4. 17일 승의여전 총학생회로 전민련에서 전화연락이 왔는데, 18일 6시 기독교회관(종로)에서 목요일예배 동우전문대(속초)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하니까 참석해 달라고 했다. 그래서 학생회장과 본인 그리고 기획부장이 함께 가기로 결정하고 기독교회관에 도착한 시간은 18:15경이었고 예배당 앞에서 김기설씨(그 당시 이름은 몰랐음)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는 이미 예배가 시작이 되었던 상태였고 인원은(일반신도) 우리들을 포함해서 20명 가량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우리들 3명은 뒷부분에 앉아 있었고 김기설씨는 우리

보다 서너줄 앞쪽에 앉아 있었는데 얼마 후 그분이 밖으로 나가시더니 모금함을 만들어 오셔서 모금해줄 것을 부탁했다. 오후 7시경이었던 것 같다. 예배중에는 서준식씨가 동우전문대 사건을 보고하는 순서가 있었고 본인은 예배에 참석한 신도분들께 김기설씨가 만들어주신 모금함으로 모금을 받았다. 그리고 난후 오후 8시경 예배가 끝나고 우리들 3명과 서준식, 김기설씨와 함께 기독교회관 지하다방에서 차를 마셨다. 그곳에서 정식으로 각자를 소개하고 모금된 액수를 확인했다. 모금된 액수는 김기설씨가 '조국은 하나다' 라고 쓰여진 수첩에 '목요일예배(모금) 38,600(4/18)' 이라고 적는 걸 직접 보았다(필기구 색깔은 검정색으로 기억됨?). 총학실 직통전화번호를 미리 기재되어 있던 승의여전관(여기에는 학교 전화번호만 있었음) 첨가해서 적기도 했다. 그곳에서 우리들은 서준식씨로부터 동우전문대 상황이나 전민련쪽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었다. 그런 후 8시 30분경 다방에서 모두 나왔고 바로 서준식씨와는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고, 김기설씨와 우리들은 전민련 사무실로 갔다. 우리가 전민련 사무실에 가게 된 것은 거리도 10분도 채 안되는 거리였고, 구경도 하고 싶어서 들르게 된 것이다. 그때 그 사무실 안에는 김기설씨가 그분의 수첩에 적혀 있던 집회일정을 쪽지에 적어서 총학생회장 이보령에게 건네주었다. 이때 본인은 김기설씨가 수첩을 보며 적어 주던 것을 직접 보았고, 건네주는 것도 직접 보았다. 하지만, 필기구는 어떤 종류의 것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검정색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종이는 줄이 쳐 있거나 무늬가 있지는 않았고 그냥 백지였던 것밖에 기억나지 않는다.

김기설씨는 이것을 적으면서 회장에게 무언가를 설명하였고, 이것을 건네받는 것까지 본인은 보고 시간이 예상보다 지연돼 총학으로 전화해서 지금 바로 학교로 가겠다고 말하고 오후 9시경 우리들은 전민련 사무실을 나와 본인은 집으로 돌아가고 회장과 기획부장은 학교로 다시 갔고 김기설씨도 지하철을 타고 어딘가를 갔다(김기설씨 복장은 베이지색 점퍼를 입었고 검은색 가죽가방을 메고 있었음). 이때 본인은 아무것도 들고가지 않았었고 회장님도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 김기설씨로부터 건네받은 쪽지는 아마 그때 회장님이 사파리 점퍼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주머니에 넣어 보관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 이후 김기설씨를 본 것은 419 기념일에 수유리 기념탑에 후배 박은애의 5명과 참배를 하러 갔다가 우연히 봄. 오후 3-4시경이었는데 별다른 대화없이 인사만 나누고 헤어졌다. 또한 419 이후 김기설, 서준식씨는 물론 전민련측과 아무런 연락을 갖지 않았다.

김기설씨가 다시 본인의 머리에 떠오른 것은 5월 8일 아침 뉴스를 보며 전민련 사회부장인 김기설씨가 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였다. 학교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들은 서로 안타까워했고, 이때 시간은 오후 3-4시쯤이었다. 그 뒤로 학생회장, 기획부장은 영안실 빈소(연대 세브란스)에 다녀왔고, 본인은 5월 12일 서강대 영결식과 신촌로타리 노제에 학보사 취재부장과 함께 참석하였다. 뒤늦게 본인의 연락을 받은 회장과 기획부장을 연대 앞에서 만났으나, 영구차가 이미 마식으로 떠난 후여서 바로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이후 체육대회 등 학내상황이 바쁜 관계로 유서대필 공방에 거의 무관심한 상태였는데, 5.20일 체육대회 예선전을 마친 후 집에 일이 있어 일찍 돌아가려는 본인에게 회장은 4.18일 김기설씨로부터 전해받은 쪽지 사본을 보여주었고, 그래서 회장이 아직까지 쪽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총학실에서 회장 기획부장 체육부장 등과 함께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잠시 나누었다. 이때 시간은 오후 5-6시경으로 기억됨. 그때 본인은 그 사본이 김기설씨로부터 받은 원본의 사본임을 여지없이 믿었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다. 별다른 결정없이 본인은 집으로 돌아왔고 기자회견을 갖기까지의 상황은 알지 못하며, 밤 10시경 기획부장이 전화로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이 있음을 알려주었고 결정이 있기까지의 자세한 상황은 21일 만나서 얘기하기로 하고 12시 학교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러나 본인은 늦잠을 자서 12시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회장이 전화를 해서 기획부장과 체육부장이 함께 간다고 해서 본인은 가지 않았고 기자회견을 TV

에서만 지켜 보았다. 회견내용은 기자들이 해설해 주는 것을 들었고 내용은 승의여전 학생들이 김기설씨가 직접 써준 쪽지를 공개했다는 내용과 공방전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예상 등이었고 회장의 말을 직접적으로 알아들 수 있게 방송을 내보내지는 않았다.

5.22 총학에서 만났고 기자회견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누었으나 별 문제점이 없는 것 같아 안심했다. 그 이후에도 본인은 전민련측과 아무런 연락을 갖지 않았고 6.8일 검찰청에서 소환장이(학생회장에 대한) 왔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회장은 부모님 과도 의논하고 이석태 변호사와도 의논했다는 것을 6월 12일날 들었다. 6.11일에 회장이 검찰에 다녀왔다는 것을 전화로 연락받았고 또 검찰청에서 3명과 함께 와 줄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6.12일 본인은 오전 수업을 마치고 2시쯤에 기획부장, 회장과 만나 회장이 검찰에 다녀온 얘기와 이석태 변호사를 만났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석태 변호사의 얘기가 회장에게 소환장이 왔을 때인지, 3명 모두 소환했을 때인지 모른다. 우리들은 13일 오전 10시에 검찰청 앞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고 헤어졌다(2시 30분쯤이었음).

1991. 6. 13
최수미

자료 가-2-39 (동아, 91년 6월 13일)

姜씨는 검찰에 자진 출두하라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로서 검찰에 자진 출두하라. 강씨는 검찰에 자진 출두하라. 강씨는 검찰에 자진 출두하라.

강씨는 검찰에 자진 출두하라. 강씨는 검찰에 자진 출두하라. 강씨는 검찰에 자진 출두하라.

강씨는 검찰에 자진 출두하라. 강씨는 검찰에 자진 출두하라. 강씨는 검찰에 자진 출두하라.

강씨는 검찰에 자진 출두하라. 강씨는 검찰에 자진 출두하라. 강씨는 검찰에 자진 출두하라.

강씨는 검찰에 자진 출두하라. 강씨는 검찰에 자진 출두하라. 강씨는 검찰에 자진 출두하라.

강씨는 검찰에 자진 출두하라. 강씨는 검찰에 자진 출두하라. 강씨는 검찰에 자진 출두하라.

강씨는 검찰에 자진 출두하라. 강씨는 검찰에 자진 출두하라. 강씨는 검찰에 자진 출두하라.

자료 가-2-38 (동아, 91년 6월 13일)

姜基勳씨 자진출두 권유

천주교 공소일장 15일이후 신변 책임못진다

천주교 공소일장 15일이후 신변 책임못진다. 강씨는 검찰에 자진 출두하라. 강씨는 검찰에 자진 출두하라.

강씨는 검찰에 자진 출두하라. 강씨는 검찰에 자진 출두하라. 강씨는 검찰에 자진 출두하라.

강씨는 검찰에 자진 출두하라. 강씨는 검찰에 자진 출두하라. 강씨는 검찰에 자진 출두하라.

강씨는 검찰에 자진 출두하라. 강씨는 검찰에 자진 출두하라. 강씨는 검찰에 자진 출두하라.

자료 가-2-38 (동아, 91년 6월 13일)

第3種郵便物(가) 認可

천주교 공소일장 15일이후 신변 책임못진다. 강씨는 검찰에 자진 출두하라. 강씨는 검찰에 자진 출두하라.

강씨는 검찰에 자진 출두하라. 강씨는 검찰에 자진 출두하라. 강씨는 검찰에 자진 출두하라.

강씨는 검찰에 자진 출두하라. 강씨는 검찰에 자진 출두하라. 강씨는 검찰에 자진 출두하라.

강씨는 검찰에 자진 출두하라. 강씨는 검찰에 자진 출두하라. 강씨는 검찰에 자진 출두하라.

◎ 91년 6월 14일 ◎

▣자료 가-1-99 (수사기록 621~622)

진술서 (3회)

성명 이보령

1. 4/18

6시 예배후 8시쯤 귀빈다방으로 갔다. 거기서 김기설씨 수첩,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김정불펜, 수첩 뒷부분에 모금 금액 38,600원 기재. 승의 총학실 직통전화번호 기재함. 그런데 검찰측에서 제시한 수첩을 보니 모금 금액은 연필로 되어 있고 전화번호는 하늘색 볼펜이나 하이테크펜임.

2. 6/8

이석태 변호사님과 얘기 도중 사실(진실)을 얘기하러 했다. 그런데 검찰측에 가져갈 메모지 있다고 해서 이석태 변호사가 원본을 21일 기자회견 후 서준식씨를 찾다 해도 상관없다 하여 검찰측에 그렇게 얘기하기로 함. 사실은 5월 20일 저녁에 사본은 부회장에 맡기고 원본은 명동성당에 가서 서준식씨 건네줌.

3. 4/18 김기설씨가 메모를 적어준 것은 사실이었다. 그런데 6/10일 검찰에 제시한 메모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것이 강기훈의 글씨라고 한다면 4/18 → 오늘 사이 원본이나 또는 5/20일 이후 원본 사본이 누구 손에 있을 때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 검찰의 질문에 나는 알 수 없다.

나는 분명히 4/18일날 김기설씨가 쓰는 것을 봤고 6/10일날 제시한 것도 기자회견 전에 복사해둔 것이라 믿고, 검찰에 제시하여 지금까지의 증언을 사실 그대로 진술한다.

1991. 6. 14
이보령

▣자료 가-1-100 (수사기록 623~626)

자술서 (2회)

본적

주소

직업 학생(승의여전 총학생회 기획부장, 도서관과 2)

성명 민수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1. 메모지 원본은 5월 21일날 서준식씨에게 준 것으로 자술한 이유

5월 20일 명동성당에 간 것은 내가 아니고 이보령과 이지숙이었기 때문에 원본을 그때 주었는지 확실히 알지 못했다. 그리고 5월 21일 내가 이보령과 기자회견을 하기 직전에 나와 보령이, 지숙이와 함께 이석태 변호사를 만났는데 그때 이석태 변호사님이 범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상의를 해라 하고 집과 사무실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고, 6월 8일날 출두요구서가 보령이에게 와서 3시 30분쯤 명동성당으로 찾아가서 서준식씨와 인사하고 출두요구서가 왔다는 얘기를 한 후 이석태 변호사와 상의를 하려고 기다렸다. 그 후 이석태 변호사와 보령이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나와 이야기를 하였는데 저에게 메모지 입수경위와 기자회견 경위 같은 걸 물었다. 그 물음에 따라 답변하였고 이석태 변호사님이 기자회견 끝나고 준 걸로 해라 하고 말한 것으로 기억되어지기 때문에 메모지 원본을 5월 21일날 준 걸로 자술하였다. 그 당시 이석태 변호사가 조그만 녹음기를 가지고 답변 내용 등을 녹음하였다.

2. 6월 10일 아침 10시 보령이가 검찰청에 갔다가 한 12-1시 사이에 온 것 같다. 돌아와서 검사가 물어왔던 얘기 즉 메모지에 관한 얘기를 물어왔다고 학생

▣자료 가-1-101 (수사기록 627~628)

자술서 2

성명 최수미

1. 사본 2매 보관 경위

5. 20일 오후 5-6시쯤 회장이 4. 18일 김기설씨로부터 받은 쪽지의 사본을 보여주고 보관을 요청했다. 그래서 본인은 가방에 넣고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고 21일 약속일에 사본이 필요할지 모르니 보관하고 있는 것을 가져와 달라고 말했고, 본인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회장이 22일 본인에게 사본을 돌려줄 것을 요구해 그대로 들여줌.

사본보관시 본인은 20일 밤 10시쯤 신문에 나온 유서의 필체와 사본의 필체를 대조해 보기도 했음.

처음 진술에서 빠뜨린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외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 절대 아님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며 진술과정에서 우연히 빠뜨리게 되었다.

4. 18일자 김기설씨로 받았던 쪽지의 형상이나 필체는 특별히 머릿속에 '이런 쪽지였고, 이러이러한 필체'라는 것을 기억하여 놓지도 않았고 이후 이 쪽지에 대한 잊고 있었다. 그러던중 김기설씨의 분신과 함께 유서대필 공방전이 벌어지며 5월 20일 회장으로 부터 사본은 건네받은 본인은 그것이 우리가 받을 때(4월 18일) 김기설씨가 쓴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회장이 의도적으로 복사 조작했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고 생각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원본의 사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고 5월 20일 회장으로 부터 받은 사본은 첨부된 사본과 동일함을 확신한다. 확신의 근거는 대필공방이 치열했던 만큼 그리고 사본은 건네받은 20일 밤에 유서와(신문에 나온) 대조해 보는 등 유심히 지켜왔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음. ————— 사본과 같은지 다른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 당시 상황의 여지가 있었다면 회장과 직접 위조 ?)300

1991. 6. 14

민수진

회실에서 했다. 그날 저녁에 이석태 변호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오늘의 상황과 다음에 출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얘기했고 자기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대답했다. 6월 13일 9시경에 보령이가 변호사님에게 전화하고 가겠다는 얘기를 했고 보령이가 저와 수미까지 출석을 요구한다고 하자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와 추궁하는 분위기가 된다면 자기 이름 대면서 찾으라고 말했다 한다.

3. 4월 18일 수첩에 4/18 목요일에 현금 36,800원이라고 까만색 필기구로 김기설씨가 수첩에 쓰고 승의여전 직통전화번호를 같은 것으로 썼다고 자술했는데 수첩을 보니 현금은 연필로 썼고 직통전화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었다. 이것은 아마 내 기억이 잘못되어진 것으로 판단한다. 한자리에서 썼기 때문에 같은 색으로 같은 필기구로 썼다고 자술하였는데 수첩을 보니 다른 색깔로 써 있어 내 기억이 잘못되었나 생각을 하고 있다.

4. 메모지는 김기설씨가 저와 이보령, 최수미가 보는 앞에서 쓴 것을 보았고 이보령이가 계속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김기설씨가 쓴 메모지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필적은 확신할 수가 없다.

5월 20일 학보사를 통해 전민련과 연락을 하고 메모지를 3-4장 복사하였는데 사본 1장을 수미에게 보령이가 주었고 나머지 원본과 사본은 모두 보령이가 지숙이와 함께 명동성당에 가져간 것으로 안다. 그 당시 수미가 보관한 사본 1장이 보령이가 기자회견 당시 보여준 메모지와 필적이 비슷한 것으로 기억된다. 수미가 보관한 사본 1장이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는 모른다.

30) 수사기록 628정의 맨 뒷부분에 첨가한 것. 복사불량으로 판독 불가.

1. 수첩에 김기설씨가 모금 액수나 총학전화번호를 적던 필기구는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둘다 검정색인 것 같았다는 추측을 했는데 실제 수첩을 봤을 때 모금액수는 연필로, 전화번호는 파란색펜으로 쓴 것으로 보아 본인의 필기구에 대한 추측이 어긋났다. 하지만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았고 검정색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추측이었기 때문에 다른 필기구로 썼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또 같은 다방, 같은 자리에서 썼던 모금액과 총학전화번호의 필기구가 다른 것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전화번호란-31(거의) 파란색으로 쓰여져 있던 걸로 보아 색깔을 맞추기 위해 파란색으로 바꿔 적었을 것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또 모금액과 전화번호를 적었던 시간적 차이도(수분 정도로 생각됨)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1991. 6. 14

최수미

■자료 가-1-102 (수사기록 629~632)

지난 5월(날짜는 기억이 않남) 전민련 XXX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받음(이름은 생각나지 않음).

전화내용 - 고 김기설씨가 학보사에 원고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고가 보관되어 있으면 자신(전민련 XXX)에게 전해줄 것을 요청.

본인은 전화상 그 사람(전민련 XXX)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확답을 보류한 채 먼저 신분을 확인해 보고자 하니 10여분 후에 다시 전화해줄 것을 제의. 그후 전화를 끊고 전민련 전화번호를 찾으려 했으나 학보사에 기록되어 있는 전화번호가 계속 틀려 학생회실로 전화번호를 찾기 위해 직접 찾아감.

그런 와중에 수습기자과 정기자들은 제분되어 있는 지난 학보를 확인해 보며 보관 캐비닛에서 전민련측 사람이 쓴 것으로 보이는 원고를 찾음(학보에 실린 사진과 이름이 고 김기설씨와 전혀 틀려 착오가 생겼음을 기자들과 이야기함).

31) 지문으로 인해 판독 불가. 1차나 2차. 628정 참조.

본인이 학생회에 가서 총학생회장에게 김기설씨가 우리 학보사에 원고를 냈다고 하면서 전민련 XXX로부터 전화가 왔음을 이야기해주고 전민련 전화번호를 가르쳐 줄 것을 요청.

이보령 회장은 전화번호를 찾아주면서 마침 자신이고 김기설씨가 직접 써준 메모 용지를 가지고 있는데 유서친필 여부로 시끄러워 중요할 것 같아 보관증이라며 책상 서랍에서 찾아 보여줌.

본인은 그 자리에서 메모지를 보며 이와 같은 사실을 전민련측에 알려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의한 후 학보사로 돌아옴.

다시 걸려온 전민련 XXX라는 사람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고가 전민련 관계자가 쓴 원고는 사실이나 자체적으로 보기에 김기설씨 원고가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해줌(그렇게 판단한 까닭-①학보에 실린 글쓴이 자신이 김기설씨와 완벽하게 다름. ②글쓴 사람 이름이 전민련 사회부 기자 XXX라고 써 있었음)

이에 대해 전민련 XXX라는 사람이 그 글 내용이 무엇이며 언제 쓴 글이냐고 물어봄. 글 내용은 자민당, 민자당이라는 제목의 글이며 1990년 X월 X일이라고 답변해줌. 그러나 전민련 XXX라는 사람은 자신들이 찾고 있는 원고는 올해(1991) 쓰여진 원고로 글 내용은 동우전문대 학원폭력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하며 그 원고는 아니므로 됐다고 말함. 또한 학보사뿐만 아니라 혹시 타기관에서 김기설씨 자필메모가 있다면 전민련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 본인은 마침 학생회장이 김기설씨 자필메모를 가지고 있으니 학생회장과 의논해 보겠다고 이야기함. 전민련 XXX라는 사람이 "이 일은 중요한 일이다. 자필메모를 가지고 있다면 꼭 협조해 달라"고 부탁하며 곧 학교 안으로 오겠다고 했음. 다시 전화통화를 해서 협조에 응할 것임을 알려주고 학교 앞 외교구락부(식당이름) 앞에서 만나기로 함.

전민련 XXX라는 사람이 김기설씨 자필메모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학생회장과 본인이 함께 나와 줄 것을 요청(자필메모를 본인이 가지고 나오라고 이야기함). 우리는 상황이 심각함을 느끼고 본인과 학생회장 외에 사진부 기자(이지숙)가 뒤에 따라와(자필메모를 가지고) 상황을 판단한 후 메모지를 건네주기로

결정한 후 3명이 함께 약속장소로 나감.

전민련 XXX라는 사람과 만나 상황을 이야기한 후 명동성당에 직접 와서 증언해 줄 것을 요청받고 이에 응함. 본인은 그 장소에게 되돌아 학보사로 돌아오고 학생회장과 사진부기자가 함께 전민련 XXX와 명동성당으로 감.

그 이후 전민련과 연락한 적도 없으며 김기설씨 자필 메모를 학생회장이 소지하고 있었으며 이에 관한 기자회견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화제가 계속됨.

1991년 6월 14일

성명: 김지연

현주소: 경기도

전화:

본적: 광주직할시

주민등록번호:



대책회의 철수시한 약속 지켜야

景甲實 수석신부

【서울 14일 특파원 보도】 대책회의 수석신부인 景甲實(53)은 14일 대책회의 철수시한을 약속한 바 있다. 그는 14일 대책회의 수석신부인 景甲實(53)은 14일 대책회의 철수시한을 약속한 바 있다.

대책회의 수석신부인 景甲實(53)은 14일 대책회의 철수시한을 약속한 바 있다. 그는 14일 대책회의 수석신부인 景甲實(53)은 14일 대책회의 철수시한을 약속한 바 있다.

李秀浩 집행위원장

경찰 들어들맨 끝까지 싸우겠다

인터뷰



法執行거부 명분부 누누에게도 없오

대책회의 수석신부인 景甲實(53)은 14일 대책회의 철수시한을 약속한 바 있다. 그는 14일 대책회의 수석신부인 景甲實(53)은 14일 대책회의 철수시한을 약속한 바 있다.

自首기임이로의 活動위축시킬텐

대책회의 수석신부인 景甲實(53)은 14일 대책회의 철수시한을 약속한 바 있다. 그는 14일 대책회의 수석신부인 景甲實(53)은 14일 대책회의 철수시한을 약속한 바 있다.

明洞성당 選舉뒤 警察투입

警 局

姜지도 20일 이후 자진출두 밝혀

대책회의 수석신부인 景甲實(53)은 14일 대책회의 철수시한을 약속한 바 있다. 그는 14일 대책회의 수석신부인 景甲實(53)은 14일 대책회의 철수시한을 약속한 바 있다.

■자료 가-2-42 (동아, 91년 6월 15일)



명동성당에서 온신종인 「대책회의」 관계수배자들을 견거하기 위한 경찰이 명동성당주변을 단속하고 있다. 서울경찰구이회회가 「명동성당」의 거리로 「대책회의」를 기별하는 「플라카드」가 부착된 자이다.

▲ 警察 警備 警備

대책회의 수석신부인 景甲實(53)은 14일 대책회의 철수시한을 약속한 바 있다. 그는 14일 대책회의 수석신부인 景甲實(53)은 14일 대책회의 철수시한을 약속한 바 있다.

■자료 가-3-25

수신: 김수환 추기경님.

발신: 서준식 (전민권 인권위원회 위원장)

제목: 강기훈 증지 보호요청에 관한 건.

다시 추기경님께 드립니다.

병중성상에 경향력 투입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돌던 지난 9일, 저는 마음이 초조한 나머지 추기경님께 면담을 요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그 때와 같은 초조감 속에서 이 글을 드립니다.

서울 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강기훈 문제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강기훈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자진충두할 것을 권유한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 관한 권 한점 부끄러움 없기에 잠적해서 절대로 안될 강기훈에게, 사실 애당초부터 자진충두라는 한가지 길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물론 이 것은 강기훈 자신이 너무도 잘 자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충분한 증거도 없이 강기훈은 범인으로 단정, 매도하는 검찰 발표를 검증도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대서특필 해버리는 언론의 엄청난 공세 속에서 그 동안 강기훈은 심각한 궁지에 몰렸으며, 이른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도저히 공정한 수사와 재판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처지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강기훈이 오늘날까지 자진충두를 미루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였으며, 이 책임을 원차적으로 검찰 장군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보호를 위해서라면 저희는 특별히 성직자의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흔이켜 보전대 역사상 어느 시기에도 '법의 테두리'는 존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꺾박 받는 사람들, 쫓기면서도 자신의 결백을 믿는 사람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교회를 찾았으며, 성직자들은 나중에 자신이 처벌 받게 됨을 각오하고 이 피난자들을 보호해왔던 것으로 압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의 존재를 알고 있기에 양심과 진실을 지키기 위하여 평종에 피난해 온 강기훈에 대한 보호를 추기경님께 뜻깊은 마음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추기경님.

저는 과거에 저 자신이 오랜 옥고에 몹시 지쳐 있었을 때 추기경님 생명을 통하여 추기경님에게 부터 입은 큰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감히 추기경님께 강기훈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강기훈의 결백함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는 까닭에 강기훈을 보호해주실 추기경님에 한하여 천주교회에 결코 불명예를 안겨드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강기훈을 보호해주심으로써 추기경님과 한하여 천주교회에 영광이 내려질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강기훈의 자진충두는 들림없이 머지않은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비록 그 수는 많지 않으나 이 사건을 공정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강기훈 자진충두의 전제조건은 갖추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국가권력 앞에 홀로 내던져져 자신의 양심과 진실을 처절하게 지켜야 할 강기훈의 마음의 준비는 착실히 되어가고 있는 듯 합니다.

강기훈이 기쁘게 무려니 마음으로 스스로 자진충두를 결정하는 순간까지 강기훈의 양심을, 그리고 저의 확신을 믿어주시고 큰 시련 속에 있는 그를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저의 지극한 초조감은 강기훈, 혹은 제가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힘에 의하여 권력이 무거워질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1991년 6월 15일

전국민중민주노동연합 인권위원회 위원장

서준식 올림.

■자료 가-3-26

김기설씨분신사건진상조사보고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김기설씨분신사건진상조사위원회

김기설씨 분신사건진상조사보고서

김기설씨분신사건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의 취지 및 조사활동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박장재)는 김기설씨분신사건에 있어서 배후조종집단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실을 밝혀 보는 것이 본 위원회의 통상의 과제라고 생각하는 한편, 당국에 의하여 유서대필자로 지목되어 이미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강기훈씨 등이 유서대필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어서, 만일의 경우 당국의 발표와는 달리 강기훈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로 인하여 야기된 인권의 침해를 심히 우려하여, 스스로 김기설씨분신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991. 5. 30.자로 본 위원회에 '김기설씨분신사건경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에 박형규 목사, 위원으로 홍성우 변호사, 박연철 변호사, 김찬국 교수, 김동완 목사, 조화순 목사를 선정하였습니다.

김기설씨분신사건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1991. 5. 30. 18:00 - 20:00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향린교회에서 범국민대책회의 황인성, 최종진으로부터 대책회의측 보고를 들었고, 1991. 6.1. 15:00-17:00에 서강대학교를 방문

하여 총장 박홍 신부로부터 김기설씨 분신당일의 제반상황을 청취하고 이어서 분신현장을 답사하였으며, 1991. 6. 3. 10:00-12:30 사이에 명동성당으로 전국민족 민주운동연합을 찾아가서 1991. 5. 5. 부터 1991. 5. 8. 아침김기설씨가 분신하기 까지 김기설씨의 행적을 지켜 보았던 목격자들의 증언을 청취하였으며, 검찰에 대하여도 보관중인 증거자료들의 열람 및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아무런 답신을 하지 않았고, 1991. 6. 12. 12:00-13:30 검찰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외에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세계기독교협의회 모임에 참석하는 김영주 목사를 통하여 김기설씨의 유서 사본과 강기훈씨의 자필을 휴대시켜 해외에 필적감정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위원 각자의 노력에 의하여 여러가지 자료를 모을 수 있었으며, 이 사건에 관하여 지금까지 경향각지의 신문에서 꾸준히 이 사건의 전말을 취급하여 왔기 때문에 신문의 스크랩을 통하여 여러 가지 쟁점을 보완 할 수 있었습니다.

2. 김기설씨 분신 당일의 상황

- (1) 김기설씨 분신당일의 서강대학교 본관 건물에서의 현장상황에 대하여는 박홍 총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청취하였습니다. 박총장은 당일 상황을 일지로 작성하여 그 사본을 조사위원회에 제공하였습니다.

- (2) 김기설씨는 1991. 5. 8. 08:07 경 서강대학교본관 옥상에서 분신한 후 곧바로 교정으로 투신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즉시 박총장에게 보고되었고, 김기설씨는 08:13경 서강대학교 부총장 승용차로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08:20 경 박총장 스스로 총무처장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가서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박총장이 올라가기 전에 학교 경비원과 몇몇 학생이 그곳에 올라 갔었다 하였습니다. 그곳에는 김기설씨가 벗어 놓은 양복 상의와 신나 2 통 (플라스틱제 1통, 비닐제 1통)이 있었으며, 양복 셔츠 호주머니에 눈에 뜨이도록 가로 21센티미터 세로 29.5 센티미터의 비포용지 크기의 유서가 접혀져서 꽂혀 있었고, 그것을 꺼내어 펼쳐 보니 그 안에 김기설씨의 유언이 적혀 있었고, 김기설씨의 명암판 사진이 1장 들어 있었습니다. 박총장은 유서의 내용을 읽어 본 후 다시 원상태로 꽂아 놓고 경비원으로 하여금 아무도 현장에 손을 대지 않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 이후 카메라를 가지고 올라온 학생으로 하여금 현장 사진을 찍도록 하였습니다. 현장에는 양복, 신나통 외에 안경, 시계가 있었고, 분신할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라이터는 옥상 난간 바깥의 턱진 곳에 떨어져 있었으며, 필기도구는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 (3) 박총장이 현장을 보존하기 위하여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일부 보직교수와 함께 대책을 논의 하고 분신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는데, 09:00 경 총학생회장이 범국민대책회의간부들 두 사람이 그들이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분신을 고집하여 이를 만류하다가 당일 새벽에 농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분신한 것인지 확인하러 왔는데 박총장을 만나고 싶어 한다 하므로, 이들을 접견하였

는 바, 그들은 임근재, 최종진이었으며, 두 사람은 김기설씨의 사진을 보고 바로 그 사람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두 사람에 의하여도 김기설씨의 학적은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고, 박총장이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잘 알고 있는 서강대학교 복학생 김선택이 유서에 언급되어 있어 혹시 같은 김선택을 지칭하는가 하여 김선택과 통화하여 본 결과 김기설과 잘 아는 사이였으며, '한양대학교 제적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연세대에 있는 범국민대책회의에서 김기설씨가 고등학교중퇴의 학력보유자라는 사실은 당일 13:00경 이었다 합니다. 김기설씨의 정확한 학력은 그가 소속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에서는 이렇다할 확인없이 별다른 문제를 삼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 났습니다.

(4) 최종진, 임근재는 그들에게 유서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박총장은 인도적 차원에서 부모에게 전달하도록 유서사본을 교부하였습니다.

(5) 마포경찰서 형사계에서 09:30 경 현장을 확인하였고, 검찰에서는 10:30 경 당도하여 총장실을 예방하고 현장을 확인한 후 학생처장실에서 학교관계자 및 총학생회장 등을 상대로 사건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분신자의 유서 원본 및 유품은 학생들이 전민련측에 인계한 것을 검찰에서 추후 연세대에 있는 대책회의로부터 인수하여 간 것으로 들어서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6) 박총장은 12:30경 학교책임자로서 학교교직원 및 언론사 기자들에게 강당에서 학교책임자로서 사건경위 및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때에 박총장은 이 사회에 죽음을 충동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고 발언함으로써 김기설씨분신사건에 배후세력이 있을지 모른다는 강한 추정을 하고 이를 비난하는 듯한 발언을 하여 비상한 관심을 끌게 하였는데, 그 배후세력이 전민련과 같은 재야단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하여 해명하여 온 바 있으며, 박총장이 어둠의 세력이라고 말한 것은 자신의 최근의 강의내용의 주제와 가까운 것이며, 우리들의 마음안에 있는 어둠, 죽음의 세력을 지칭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박총장의 신앙적 차원에서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세력을 죽음을 선동하는 배후집단으로 굳이 해석하려는 언론은 잘못된 태도라 하였습니다. 대학교의 총책임자로서 교내에서 분신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오던 중 김기설씨분신사건이 서강대학교에서 발생하자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일이었음은 분명한 듯하나, 구체적인 배후세력의 존재를 고집하지는 않았습니다.

(7) 15:00 경 김기설씨가 유서에서 명기한 김선택(전민련, 서강대 경제학과 3학년 복학생) 이 총학생회장과 함께 총장실을 방문하여, 김기설씨의 용기 있고, 거룩한 죽음이 오도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김기설씨가 한양대학교에 적을 둔 사실이 없었음은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갔다 합니다.

(8) 박총장의 설명을 들은 후 조사위원들은 박총장의 안내를 받아 분신현장으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곳은 본관 5층 철제 문을 통과하여 나간 후 다시 약 3미터 높이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 가야 했습니다. 분신현장에는 자갈이 깔려 있었고, 김기설씨는 그곳에서 분신한 후 까맣게 내려다 보이는 교정으로 투신한 것입니다. 박총장은 젊은이의 분신사건이 잇따르자 옥상으로 통하는 철문을 늘 잠금 놓도록 지시하였다는데 김기설씨가 어떻게 옥상에 올라 갈 수 있었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위원들이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옥상으로 통하는 철문은 남아 있었고, 둘러서 여는 손잡이 외에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있었으나 부숴져 구멍이 찌그러져 보이는 상태였으므로 쉽게 열고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 잠근 상태에서도 힘을 주어 밀면 열리는 경우가 있다 하였습니다. 김기설씨가 서강대학교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서강대학교 구내에 이른 아침부터 도서관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다수 교정에 있었다고 합니다. 조사위원들은 라이터가 떨어져 있었다는 난간바깥쪽 턱을 확인하였습니다.

* 소결론

(1) 항간에는 김기설씨가 분신한 현장에서 유서를 발견할 수 없자 재야의 일원이 황급하게 유서를 급조하여 양복 및 호주머니에 꽂아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김기설씨 분신사건 직후 학생 몇 사람이 경비원과 함께 올라 갔다 하나 그 뒤를 약 5분쯤 뒤에 박총장이 쫓아 올

라 갔으므로, 그와 같은 추측은 사실도 아니고, 유서를 조작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2) 박총장은 기자회견석상에서 김기설씨분신사건에는 배후에 이를 조종하는 이들의 세력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었으나 그것이 특정 재야단체를 지칭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박총장은 사건 발생 직후에 그와 같은 의심을 상당히 가졌던 듯하나 추후의 검토에 의하여 그와 같은 추측은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였다.

2. 김기설씨의 1991. 5. 4. - 5.8. 사이의 행적

(1) 조사위원회는 전민련측의 간부 황인성, 최종진, 서준식, 강기훈, 이보은 등의 진술과 방송통신대학생 이지혜, 송국영의 진술 및 신문보도자료, 그리고 위원 개인의 비공식적 증거수집에 의하여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2) 김기설씨는 1991. 5. 4. 백골단체의 날 시위에 정운서와 함께 전민련 깃발을 들고 시위에 참가하였다가, 21:30 경 5-6명과 함께 전민련 사무실에 들어와서 티브이 뉴스를 보며 3-40분쯤 머무르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전화로 서울역 앞에서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전민련 깃발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므로 김기설은 다시 깃발을 휴대하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3) 김기설씨는 1991. 5. 5. 10:00 서울 종로구 동숭동 소재 방송통신대학 씨클룸에서 소리새벽 회원 김용해, 문윤희, 이지혜, 송국영, 신교한, 박경민 등과 만나, 12:00 경까지 자기소개 위주로 모임을 가지다가, 뒷풀이로 14:00 경까지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계속하였고, 미진하다고 생각하여, 다시 개별적으로 만나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여, 이지혜와는 1991. 5. 6. 12:00 연대 홍익서점에서, 김용해와는 1991. 5. 7. 12:00 연대학생회관 로비에서, 신교한과는 1991. 5. 9. 에, 송국영과는 1991. 5. 10. 에, 문윤희와는 추후에 약속시간을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시각에 김기설은 1991. 5. 8. 분신을 결행하기로 확정하지는 않은 듯 합니다.) 그리하여, 김용해, 문윤희는 먼저 돌아 가고, 김기설은 남은 4인과 함께 학교에서 나와 대학로 근처 '유정'이라는 음식점에서 식사와 술을 같이 하였고, 18:00경 그곳을 나와 그 옆 주점에서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19:00경 그곳을 나와서 신교한, 박경민이 돌아 가고, 이지혜, 송국영 과 함께 '학림다방'에 들어가서 사랑에 대하여, 사랑의 실천에 대하여 20:30 경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이때 김기설이 종로 5가 부근에 잘 아는 호프집이 있다고 하면서 같이 가기를 청하였고, 이지혜, 송국영이 뒤따라 갔으나, 김기설이 찾지를 못하고 3-40분을 헤매자 21:30경 막걸리 4 병과 안주를 사가지고 부근 백제여관으로 들어 갔습니다. 김기설은 이때에 술이 많이 취해 있었고, 몹시 피곤해 보였는데도, 여관에서 자신이 힘들게 살아온 이야기를 하였으며, 가난한 사람은 늘고생만 하면서 그런 식으로 살 수 밖에 없는 세상임을 말하였습니다. 김기설은 조성만 열사의 죽음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그 죽음이 시기를 잘 타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말을 하였습

니다. 이들은 이야기도 나누고 술도 마시며 노래를 부르기도 하면서 지냈습니다. 이지혜, 송국영은 김기설을 누군가에게 의뢰하고 귀가하기 위하여 몇군데 전화를 걸어 보았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김기설이 나는 죽을 것이다 는 말을 하면서 내가 왜 죽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여 보자고 하였으며, 1991. 5. 8.에 죽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지혜, 송국영은 김기설이 죽음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자 반신반의하였습니다만 이에 관하여 적극적인 저지 또는 논금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4) 1991.5.6.아침 송국영은 회사에 출근하고, 이지혜는 그날 회사를 쉬는 날이어서 김기설이 일어나는 것을 기다렸다가, 12:00 경 김기설과 함께 백제여관을 나왔다 합니다. 송국영과 이지혜는 이날 김기설이 전날 한 이야기가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여 볼 생각을 가졌습니다. 김기설은 16:00 경 전민련 사무실에 와서 경원대 천세용군 분신사건으로 성남을 간다고 하면서 자료를 챙겨서 나갔습니다. 김기설은 성남에 있는 터사랑 사무실에 갔었으며, 18:30 경 황토연 서점에서 성남민청연 회원 이효경을 만났습니다. 21:30경에는 김병희군과도 만나 자정 무렵까지 김병희, 이효경과 함께 있다가 김병희의 집으로 가서 잤습니다.

(5) 김기설은 1991. 5. 7. 김병희의 집에서 08:30 경 일어나 등교하는 김병희와 함께 나와 흑석동 중앙대학교 앞까지 같이 와서, 김병희는 학교에 가고, 김기설은 89번 버스를 타고 신촌으로 향하였습니다. 김기설이 89번 버스를 타는 것을 김병희가 목격하였다 합니다. 김기설은 이날 12:00 연대학생회관 로비에서 소리새벽회원 김용해와 만나기로 약속한 바 있었으나, 김용해가 12:00 부터 약 20분을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용해는 그대로 돌아 왔습니다. 김기설의 1991. 5. 7. 오후의 행적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만, 김기설은 14:30 경 신촌에 있는 민직청 사무실에 나타나 홍만희를 만났다 하며, 민직청 간부 2-3 명과 만났고, 그곳에서 임근재를 찾았다고 합니다. 김기설은 이날 18:00 에 마포에 있는 장미빛인생 카페에서 이지혜와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 약속은 지키지 않았고, 19:30 신촌에서 홍성은과 만났습니다. 김기설은 1991. 5. 6. 오후 홍성은이 근무하는 학교로 전화를 하여 '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만나기가 힘들겠다' 는 말을 하여 다음날 만나게 되었던 것이며, 이날 김기설은 자신이 분신하여 최근 잇따르는 대학생들의 분신자살에 대하여 기성세대로서 책임을 지고자 하는 뜻을 밝혔고, 자신이 소지한 전민련수첩중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힌 부분을 뜯어내서 자신에게 무슨일이 생기면 그중 〇 표를 한 사람에게 곧바로 알려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홍성은이 이를 만류하면서 받지를 않자 수첩채 홍성은에게 건네 주고 헤어 졌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지혜는 약속장소에서 세시간을 기다려도 김기설이 나타나지를 않자, 김기설이 정말로 분신을 결행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들어 21:40경 연대

로 범국민대책회의를 찾아가 이보은을 만나 김기설이 분신하려 한다는 정보를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보은은 임무영에게, 임무영은 임근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범국민대책회의에서는 김기설의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 하였으며, (끝내 전화연락이 안됨) 홍성은에게도 연락을 취하였으며, 임근재는 김기설을 찾아 김기설과 함께 자취하는 북가좌동으로 갔습니다. 자취방은 건물 5 층의 옥탑에 있었는데, 임근재가 도착하여 보니 이불이 안개진 상태로 잔 흔적이 있었고, 먹다 남은 빵, 바나나 등이 있었고, 방한가운데 유서의 일부분 내용과 일치하는 쓰다만 메모가 있었습니다. 임근재가 자취방을 나오려고 하는데 마침 김기설이 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임근재는 김기설을 만나자, 방 좀 치워 놓고 다니라고 역정을 내고, 함께 부근 포장마차집으로 내려 갔으며, 범국민대책회의에 전화를 걸어 김기설을 붙잡았다는 사실을 알리고, 누구 한 사람 더 보내 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6) 이 때 온 사람이 이보은입니다. 이보은은 이해학 목사의 딸이며, 범국민대책위에서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임근재와 이보은은 분신에 대하여는 직접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로 화제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이보은이 포장마차집에 도착하였을 때 김기설은 츄리닝 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새벽 02:30경 임근재가 명륜동에 있는 잘 아는 술집으로 자리를 옮기자고 제의하여, 세사람은 자취방까지 올라와 김기설은 위아래 양복으로 갈아 입고 속에는 티셔츠를 그대로 입었으며, 이때 레포트 용지를 몇장 뜯었습니다. 이 용지는 유서를 작성한 용지는 아니라고 합니다.

(7) 김기설은 이때 전민련을 그만 두겠다, 어머니 산소에 다녀 왔다,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말을 하였었고, 서준식, 김선택을 존경한다. 김선택은 자신이 모르는 부분을 많이 가르쳐 주고, 서준식은 때문지 않은 아름다운 분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임근재는 김기설로 하여금 분신할 생각을 버리게 하기 위하여, 자취방에서 쪼은 메모지를 김기설에게 주면서, 자신의 손으로 찢어 버릴 것을 요구하였으며 김기설은 그 메모를 찢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들은 명륜동 포장마차집을 나오면서 노래도 몇곡 불렀고, 사이사이에 분신하는 것은 소영옹주의에 불과한 행위임을 말해 주어 김기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들은 대학로쪽으로 내려 오다가 편리점에 들러 커피와 초콜렛을 사 먹었으며, 비를 피하기 위하여 마로니에 공원으로 들어가 건물 현관에 비를 피하여 앉아 있었습니다.

(8) 이즈음 김기설이 작은 소리로 가보아야 하겠다고 일어서 나가므로 임근재가 뒤쫓아 가보니 전화박스 안에서 전화를 걸고 있으므로 돌아 오겠거니 하고 건물현관으로 돌아 왔는데 그 사이에 김기설은 자취를 감추어 버린 것입니다. 이 시각은 5.8. 05:30 경이었다 합니다. 당황한 임근재와 이보은은 범국민대책회의로 전화하여 김기설을 놓쳤으니 연대를 막아 달라고 알리는 한편, 대학로 위아래 쪽으로 황급히 찾아 보았으나 찾지를 못하고, 연대로 돌아 와서 학생회관, 도서관, 영안실정문 등을 찾아 보고, 김기설이 한양대학교 출신이라는 데에 생각이 미쳐 한양대에도 연락을 취하여 보았습니다.

(9) 김기설이 05:30경 부터 분신을 결행한 08:07 경까지 어떠한 경로를 거쳐 서강대학교 본관 옥상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알려진 바 없습니다. 이 사이에 김기설은 사전에 준비하여 보관한 신나 2통을 찾아서 휴대하고, 홍성은에게 06:30 경 전화를 하여 이대 부근이라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남아서 열심히 살아라는 말을 남겼으며, 이 시간동안에 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추측하여 볼 수 있습니다.

* 소결론

- (1) 1991. 5. 4. 밤부터 1991. 5. 8. 08:07 사이의 김기설의 행적중 가장 알 수 없는 부분은 1991. 5.8. 05:30경 부터 08:07 사이이다. 그 이외의 시간은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여 그의 행적을 대부분 복원할 수 있다.
- (2) 김기설은 자신의 분신계획을 전민련동료들에게는 털어 놓지 않고,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닌 송국영, 이지혜에게 5.5. 밤 최초로 언급하였으며, 성남터사랑 회원 교선부장 김병희에게는 5.6. 밤 그와 같은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그 다음날 5.7. 밤 여자친구 홍성은에게는 확고한 결의를 가지고 자신의 분신계획을 통고한 것이었고, 그외 전민련 간부와 사전 협의한 기미는 없다. 임근재 이보은은 김기설의 분신을 저지하려 한 것이 분명하다. 또한 후술하겠으나, 5.5.부터 5.8. 사이에는 김기설과 강기훈은 서로 만난 일이 없다 하고, 이것 또한 사실로 인정된다.

(3) 김기설이 이보은에게 한 말로 보아 김기설은 5.5.부터 5.7. 사이에 어머니의 묘소를 다녀 온 것으로 짐작된다. 김기설의 행적중 알려지지 않은 시간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4) 김기설이 신나를 보관한 장소는 김기설의 관리하에 있는 곳이었을 것이다. 자취방 또는 그 부근이거나, 아니면 범국민대책회의가 있었던 연세대학교구내였을지 모른다. (백기완씨가 김기설을 5.8. 05:30 경에 연대 구내에서 목격하였다는 말은 확인하여 볼 여지가 있다.) 또는 분신현장인 서강대학교 구내에서 조달할 수 있었는지 모른다. 그 짧은 새벽시간에 신나를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5) 김기설이 언제 어디에서 유서를 작성하였을 것인지에 관하여 유서의 필체가 누가 보아도 속필이므로 급히 작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김기설이 분신당일 이전에 작성하였다면 그와 달리 정자체로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그는 수정 싸인펜과 비포용지를 입수하여 어디서인가 작성하였는데, 분신현장에서 싸인펜이나, 여분의 종이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작성되었다고 본다.

자취방에서?

4. 강기훈씨의 1991. 5. 4. 부터 1991. 5. 8.까지의 행적

(1) 이에 관하여는 강기훈 자신이 작성한 진술서와 강기훈 자신이 본 조사위원회 앞에서 진술한 내용을 주로 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2) 강기훈은 1991. 5. 4. 전민련사무실에서 상황담당을 하고 있었으며, 김기설이 같은 날 21:30 경 사무실에 들어 왔다가 뉴스를 보고난 이후 22:00 경 다시 전민련 깃발을 들고 서울역 방면으로 나가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 때에 사무실에는 노문협 소속 3-4명이 있었고, 오세중이 있었습니다.

(3) 강기훈은 1991. 5. 5. 집에서 쉴 생각으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고, 13:40 경까지 집에서 쉬다가, 친구 진수의 생일축하모임을 이영미의 집에서 가지기로 하였기 때문에 14:00 구의전철역에서 진수와 만나 14:20 경 이영미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는 홍성은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네명에서 식사를 하고, 잡담을 나누며, 티브이를 시청하다가, 18:20 경 이영미의 집을 나와서 건국대 정문 앞에 있는 반달집에 가서 막걸리와 고갈비를 함께 들었습니다. 21:30 경 약간 거나해져서 반달집을 나와 이영미는 집으로 돌아 갔고, 강기훈은, 진수는 남아서 화양리 소재 상호불상 생맥주집에 가서 생맥주와 마른 안주를 시켜서 함께 먹고 24:00 경 그곳을 나와, 강기훈이 한잔만 더하자고 청하여 건대 입구역 근처 실내포장마차 '고바우' 집에 들어가서 소주 1

- 병과 마른 안주를 시켜 마시고, 01:00 경 그곳을 나와 두사람과 헤어져서, 01:30 경 집에 도착하였다 합니다.
- (4) 1991. 5.6. 강기훈은 전날 과음하였고, 평소 몸이 안 좋았던 것이 겹쳐 출근을 하지 못하고 내내 집에 있었다 하며, 특별한 연락이나 만남이 없었다고 합니다.
- (5) 강기훈은 1991. 5.7. 10:00 이 지나 종로 5가에 소재한 전민련 사무실에 도착하였습니다. 전날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가 많이 밀려 있었고, 조직국 형민 선배로부터 심한 꾸지람을 당하였습니다. 강기훈이 사무실일들을 대강 정리하고 나니 해가 저물었고, 18:40경 퇴근하여 19:30 경 건대 입구역에서 이영미와 만나 차를 마시고, 함께 화양리 쪽에서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드릴 카네이션, 초콜렛, 카세트등 선물을 사고, 22:00경 헤어져 귀가하였습니다. 강기훈은 부모님께 선물과 카네이션을 드리고, 자기방으로 들어가서 그즈음 하고 있는 번역 교정작업을 새벽 2시경까지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 (6) 1991. 5. 8. 강기훈은 늦도록 잠자리에 누워 있었는데 09:40 경 아침뉴스를 보고 있던 어머니가 ' 또 분신하였다'는 말을 전하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안방으로 달려 갔고, 거의 동시에 이영미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기설씨가 분신하였다"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강기훈은 곧바로 연세대 상황실로 전화하여 김

- 기설의 분신을 확인하고, 전민련 사무실로 나가서 형민과 함께 상황을 파악하고 전달하고, 연세대에는 영정과 유사를 보내 주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때 가장 곤혹스럽게 느낀 것은 김기설의 신원을 파악하는 문제였습니다. 낮시간에 진수로부터 홍성은이 함께 있는데 상태가 좋지 않으니 와 줄 수 없느냐는 전화 연락을 받고, 15:00 경 연세대에 도착하여 홍성은과 진수를 만나 홍성은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였으며, 셋이서 학생회관 1층에서 간단히 요기를 마쳤으며, 식사후 홍성은이 빈소에 분향하는 것을 보고, 16:30 경 연대를 나와 사무실로 돌아가 5.9.01:30 경 귀가하였습니다.
- (7) 강기훈의 5.8. 이후의 행적 가운데 유서대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대비하였다는 모임에 관한 진술을 덧붙입니다. 강기훈은 1991. 5.10.14:00 경 사무실에서 홍성은으로부터 만나고 싶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사무실에 다른 사람이 없어 나갈 수 없으니 홍성은이 사무실로 오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고, 홍성은은 15:00경 사무실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때는 마침 노문협 사람들이 와 있었기 때문에 강기훈과 홍성은은 사무실을 나와 종로 5 가에 있는 봉쥬르 코피숍으로 같이 갔습니다. 홍성은은 강기훈에게 " 형, 아무래도 검찰에서 저를 조사할 것 같아요." 라고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강기훈은 " 왜 그러냐. 이미 기자회견 등에서 경향이 다 밝혀 졌고 내가 관련된 것이 없지 않으나" 고 반문하였더니, " 검찰에서 조사한다는 연락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 '검찰에서 조사 받

을 때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고 물어 와서, " 모든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여라 다만 그간 공안기관에서의 수사는 강압수사가 일반적으로 횡행하고 있으니 번복 진술을 피하고 특히 유도신문에 넘어가지 마라. 그리고 주변 사람의 이름을 많이 대지 않는 편이 좋을 것이다." 는 조언을 하였으며, 홍성은 "알았다"고 하였다 합니다. 같은 날 21:00 경 진수, 이영미, 홍성은 셋이서 명동성당에서 개최된 김기설씨 추모제에 참석하고 나서, 강기훈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하였고, 강기훈은 다시 그들이 종로 5가 도이치호프에 오도록 요청하였으며, 22:00경 그들과 약속장소에서 만나 생맥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특별한 내용은 없었으며, 23:00 이 넘어 넷이서 23번 좌석버스를 타고 화양리에서 같이 내려 홍성을 집앞에까지 데려다 주었으며, 다시 이영미도 택시에 태워 집까지 내려다 주고, 진수와 함께 실내 포장마차집에서 소주를 마시다가 02:00경 쯤 귀가하였습니다. 그후 5. 12. 김기설씨 장례식날에 강기훈은 16:30 경 장례행렬이 전민련 사무실에 도착하였을 때부터 진수, 홍성은, 이영미에 합류하여 21:00경까지의 장례식에 함께 있었고, 20:00경 서울로 되돌아 와서 넷이서 워 도이치호프에서 만나 23:30 경까지 생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침울한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기 위하여 주로 농담을 하였었습니다 홍성과 이영미는 먼저 좌석버스편으로 돌아 가고 진수와 강기훈은 기독교회관 맞은 편 '터'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01:40 경 전민련 사무실에 도착하여 진수와 함께 잤습니다. 1991. 5. 13. 22:00경 강기훈은 이영미등과 함께 있던중 홍성

은의 이야기가 나와 이영미가 홍성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성은의 전화받는 태도가 이상하였으며, 무엇을 물어 보아도 나중에 이야기 할게 라는 대답을 하였다 하므로 다시 전화해 보게 하였더니 검찰에서 바로 연행하여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 소결론

- (1) 강기훈이 자신의 행적에 대하여 진술하는 내용은 매우 간명하고, 진실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 진다. 다만 본 조사위원회는 강기훈의 진술을 다른 방법 예컨대 같이 있었다는 사람들의 진술에 의하여 검증하여 볼 기회는 갖지 못하였다.
- (2) 검찰에서 유서대필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전민련 간부들이 모임을 가졌다는 취지의 의혹을 발표하였으나, 그 모임이 진수, 강기훈, 이영미, 홍성은 네사람의 모임을 지칭한 것이라면, 김기설의 친구들의 모임이었을 뿐, 유서대필을 음모하는 모임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 (3) 유서를 대필하였다는 것은 김기설의 자살을 방조하였다는 추궁을 받는 행위이다. 유서를 대필하였다고 하면, 김기설은 강기훈에게 자신이 분신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을 것이며, 강기훈은 이에 찬동하여 유서를 대필하여

주었을 것이다. 강기훈이 유서를 대필하여 줄 정도라면, 김기설이 분신할 시간과 장소를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며, 분신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물을 챙기는 데에도 조력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지에 관하여는 강기훈의 진술, 김기설의 행적을 대비하여 볼 때 추측될 만한 근거를 발견하기가 힘들다.

5. 검찰에서의 유서대필 결론에 대한 의견

- (1) 검찰의 의견은 신문지상을 통하여 발표된 바에 따른 것이므로 부정확한 점이 없을 수 없으나, 검찰에서 이미 강기훈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놓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 (2) 검찰에서 가장 주목한 것은 김기설씨의 유서필적과 강기훈이 1985년 민정당중앙연수원농성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 받았을 때의 자술서, 대학시절의 화학노트, 그리고 전민련에서 김기설씨의 수첩이라 하여 검찰에 제출한 수첩의 필적이 모두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강기훈이 유서대필 사실을 은폐하려고 기도한 점은 홍성은의 진술에 의하여 명확하여 졌는 바, 첫째는 홍성은의 수첩에 적힌 '김기설 742-9127-8() 742-8289' 라는 글씨가 사건 이후 강기훈이 써 넣으며,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김기설씨가

쓴 것이라고 진술하라고 시켰다는 진술을 받아 냈으며, 또한 홍성은이 검찰출두를 앞두고 전민련 간부 오세중에게 김기설씨의 수첩을 돌려 달라고 하자 '그 수첩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대답을 듣고 반환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진술을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증거보전절차를 마쳐 두었으며, 위 수첩을 감정한 결과 필취선이 합치되지 않고, 필압도 맞지 않아 원래의 김기설씨의 수첩이 아니고, 강기훈이 사후에 조작하여 검찰에 제출한 것임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 (3) 그외에 검찰측에서 흘러 나오는 내용은 홍성은이 검찰에서 조사받은 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기훈씨가 유서작성자라는 사실을 알았느냐' 라고 경탄조로 물어 보았다든지, 김기설씨가 송국영에게 분신할 것을 말하면서 "내가 왜 죽어야 하느냐, 개새끼들 나 죽을 거야" "살고 싶다"는 말한 것으로 보아 자의에 의한 결단이 아니라는 뉴앙스를 풍기는 심증을 발표하였습니다.

* 소결론

- (1) 검찰에서 내리고 있는 결론은 홍성은의 증언, 필적에 대한 과학적 수사에 근거하여 발표하는 것으로 일응 간명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검찰이 홍성은으로부터 유서가 대필된 것이라는 유력한 증거가 되는 진술을 받

고 증거보전절차까지 마쳤다고 하나, 홍성은이 한 밤중에 불법연행되어 철야하면서 추궁을 받는 동안 위협과 회유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증거보전절차라 하나 검찰에 의하여 엄중하게 보호되고 격리된 가운데 시행된 것이며, 홍성에게 있어서는 법관 앞으로 나아갔다 하여도 자유롭게 진술할 만큼 해방된 것이 아니고 검찰이나 법원이 모두 홍성의 자유로운 진술을 억압하는 관료였을 뿐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홍성은이 아직 공개된 장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고, 공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격리되고 있는 것이다.

- (2) 검찰에서 의뢰한 필적감정은 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통상 2인 이상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감정하게 하는 관행을 벗어나 이 사건의 경우 감정실장 1인만이 감정에 임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감정요원에 의하여 진실이 탄로될 것을 두려워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김기설이 근무하던 시절에 작성한 문건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 졌으나, 그것과 유서의 필적과의 이동에 대하여는 아직 언급이 없다. 검찰에서는 전민련에서 제출한 수첩이 위조된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그 실물을 기자들에게 확인시켜 준 바는 없다. 위 수첩을 검찰에 제출할 때 동행한 이석태 변호사에 의하면 수첩에서 절취된 부분의 합치여부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정도로 실선 재봉선 부근에 고르게 찢겨져 있었다 한다. 검찰에서는 전민련측에서 김기설이 작성한 것으로서 수집하여 놓은 필적에 대하여는 그 진정성과 동일성에 관하여 감정

하여 보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대단히 편협하고 불공정한 자세이다.

6. 전민련의 주장에 관한 의견

- (1) 유서대필사건에 관하여 전민련측에서 최종진, 황인성, 서준식, 이보은 등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였으며, 그외에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청취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 (2) 전민련에서 김기설씨의 분신계획을 알게 된 것은 방통대 소리새벽회원 이지혜로부터 1991. 5. 7. 21:40 경 이었고, 박경민은 같은 내용의 전화를 최종진에게 하였었고, 같은 날 장준호가 김문정을 통하여 홍성을 만나 김기설의 분신계획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전민련에서 임근재로 하여금 김기설을 찾아 이를 저지하도록 지시하였고, 이보은도 밤이 새도록 김기설씨 옆에서 이를 저지하는 것을 돕다가, 5.8. 05:30 경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김기설을 놓쳐 버렸다는 것은 상술한 바와 같습니다.

- (3) 전민련에서 김기설씨의 수첩에 관하여 진술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민련 수첩은 1990. 12. 10.경 인쇄를 완료하여 같은 달 17. 경부터 배포한 것입니다. 홍성은이 김기설의 수첩을 범국민대책회의로 가져온 시각은 1991. 5. 8. 12:20 경이었고, 수첩을 최초로 전달받은 사람은 전민련 선전국 부장 원순용이었으며, 원순용은 같은 날 오후 김기설 관계

자료수집을 맡았던 전민련 편집실 부장 최재민에게 수첩을 전달하였으며, 최재민은 1991. 5. 9. 낮 이보은에게 김기설 관련자료가 든 서류봉투를 보관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직접 총무국 서류보관함에 넣고 갔으며, 1991. 5. 12. 김기설의 장례준비를 위하여 김기설의 주민등록증을 찾다가 이 보은이 그 서류봉투속에 김기설의 수첩이 있음을 확인한 바 있었고, 1991. 5. 13. 강경대군 장례식을 하루 앞두고 상황실이 명지대학교로 옮겨 가면서 서류보관함은 봉합되어 명지대학교로 옮겨 갔다가 장례식이 5.18.로 미루어지게 됨에 따라 봉합이 뜯기지 않은 채 5.15. 연세대학교로 돌아 왔으며, 이후 수첩이 담긴 서류보관함은 봉합이 풀려 대책회의 상황실에서 총무국원들 책임하에 5.18. 아침까지 보관되다가, 같은 날 대책회의가 명동성당으로 옮겨짐에 따라 보관상의 편의를 위하여 다시 봉합, 포장되어 다른 짐들과 함께 전민련 사무실에 맡겨졌었는데, 5.18. 필적문제가 대두된 후 5.19.부터 수첩의 행방을 찾다가 전민련 조직국 부장 김현수가 성남 자택에 있는 이보은에게 전화로 수첩의 행방을 물었고, 대책회의 서류보관함 속에 있다는 이보은의 대답에 따라 서류보관함을 개봉하여 수첩을 찾아 냈으며, 5.19. 22:00 경 김현수는 명동성당 농성장으로 수첩을 가져 왔고, 전민련에서는 5.20. 오전 기자회견을 한 후 오후에 검찰에 제출하였다는 것입니다. 전민련에서는 수첩중 주소록 부분이 찢겨 있는 이유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고, 단지 홍성은의 진술에 의하여 김기설이 그부

분을 찢었다는 것을 알 뿐이라 합니다. 찢어진 4장 중 1장이 없는 이유도 전민련측에서는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 (3) 전민련측에서는 그동안 김기설씨의 필적을 여러 곳에서 수집하였습니다. 김기설이 작성한 사회국 업무일지, 김기설이 1991. 4. 18. 20:00 경 전민련 사무실에서 승의여전 총학생회장 이보령 외 2명이 보는 앞에서 작성하였다는 메모, 성남 터사랑 청년학우회창립대회에 참석하여 기재한 방명록 글씨, 김기설이 작성한 이력서, 1991. 3. 23. 전교조원주 지회사무실이전개소식에 참석하여 기재한 방명록 글씨, 수원 민청련 창립대회 참석시에 기재한 방명록 글씨, 성남민청련의 상황일지, 조직기구 표, 속초동우대지자회건관련자료 서류봉투 등입니다.
- (4) 전민련측에서는 검찰에 제출된 수첩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수첩 내에 기재된 사항이 모두 김기설과 관련된 사항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중 동민(4.8.) (동서울민주화운동청년연합), 민직, 중민 (4.9. 화)(민주화운동직장청년연합, 중서울민주화운동청년연합), 목요예배(4.18. 목), 원진레이온, 강제징집철폐무기한농성, 민교협, 터사랑청년회해동머리 등은 김기설, 서준식에게 해당되는 업무였고, 강기훈은 관여하지 않았으며, '진선생 576-5079 000/0'은 수배중인 전민련공동의장 한상렬의 연락처였으며, 그 번호는 보안유지를 위하여 김기설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비

필이었으며, '이현우 457-1881'은 강기훈의 가명 전화번호이고, 대부분의 이름이 김기설이 성남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며 '03480 942-8390'(한송흙)은 김기설이 가장 절친하였던 고향친구로서, 분신전날 홍성은에게 자신이 죽으면 한송흙에게 반드시 연락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홍성은 앞에서 기재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 소결론

(1) 전민련에서 주장하는 바 강기훈은 유서를 대필한 사실이 없으며, 전민련에서 조직적으로 김기설의 분신을 사주한 바 없다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심증은 가나, 전민련측에서 김기설의 학력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였다거나, 김기설씨의 수첩이 찢겨진 경위 등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으며, 강기훈은 자신의 수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석연하지 못하다.

(2) 전민련에서 수집한 김기설의 생전 필적에 관하여 진정성이 입증되고 하면 유서는 대필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지어져야 할 것이다.

7. 결 어

본 위원회에서는 조사과정에서 편견과 예단을 배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평소 본 위원회의 활동은 재야의 성격을 띄고 있어서 본 조사에 있어서도 전민련측을 옹호하려는 경향을 가졌다고 할 지 모르겠으나, 본 위원가운데는 유서대필의 가능성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는 위원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로서는 완전할 조사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검찰과의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본 위원회에서 해외에 의뢰한 필적감정의 결과를 접수하지 못한 채로 부득이 중간적 결론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위원회의 현재까지의 조사결과로는 강기훈씨가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다는 심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결론은 우리들이 직접 관련자를 면담하여 진술을 직접 청취한 결과 이루어진 것입니다. 강기훈씨가 유서를 대필한지도 않았는데 현재와 같이 자살방조죄의 혐의를 받고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라면 이것은 강기훈씨의 인권을 극도로 유린한 경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검찰에서 유서가 대필되었으며, 강기훈씨가 대필한 것이라고 결론을 지은 것은 상술한 바 여러 의문점이 있으므로 강기훈씨에 대한 구속집행을 서두르지 말고 자유롭고 안전한 상태에서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연후에 구속여부를 결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현재 각계 각층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검찰, 변호인, 정당, 인권단체 등의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공개리에 강기훈씨로 하여금 필적감정에 충분한 서류를 작성하게 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뿐 아니라 공인된 국내감정기관, 신뢰할 만한 해외 감정기관에 필적감정을 의뢰하여 공정한 결론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본조사위원회는 본건에 관심을 가진 유관단체와 연합하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1991. 6. 1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김기설씨분신사건진상조사위원회

김기설씨 분신사건 진상조사단 견해

○ 김찬국 부총장

- 1) 검찰이 답하지 않은 것은 유감 / 비록 비공개수사라고 하지만 실상은 언론을 통해 여론 재판처럼 진행됐던 것을 못밝힐 이유가 없다고 본다.
- 2) 박총장의 발언 "죽음의 배후세력"은 종교적 이미지, 실지도 있었던 것은 아니다. - 대필해서 김기설씨의 주머니에 넣은것은 아니다.
- 3) 강기훈의 양심선언등을 감안해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자유로운조사)

○ 박형규 목사

- 1) 객관적으로 조사하려 했지만 검찰의 무응답은 유감.
- 2) 필적에 대한 객관적(해외 기관등)감정 필요.

자료 가-3-27

1991. 6. 15.

사제단 '91-06-01

수신: 남계

발신: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내용: 고 김기설군 유서대필사건과 관련한 사제단의 대응경위

1.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름 아니오라고 김기설 형제의 유서대필 사건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 저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에서 취한 그간의 대응경과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검찰은 고 김기설형제의 분신사망 직후부터 죽음의 배후가 있다는 등, 실제적 진실에 대한 진지한 규명노력보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유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사제단에서는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여러 자료를 검토하고, 변호사들과의 접촉, 사건관련자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이 사건이 다분히 정치적 의도에 의해 악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공권력 수호를 운위하며 하느님의 성전인 명동성당에 경찰력을 투입하겠다는 협박을 공공연하게 유포함으로써 하느님의 성전을 모독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6월 11일 본 사제단 명의로 현정부의 경찰력 투입시사와 이 사건의 올바른 해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성명서 참조)

아울러 지난 6월 14일 본 사제단을 대표하여 4인의 사제가 (김병상신부, 김승훈신부, 오태순신부, 문정현신부) 변호인과의 논의를 거쳐 본 사제단의 세안사항인 제3의 장소에서의 공정한 공개수사가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음을 재확인하고, 현재 명동성당에 은신중인 강기훈 군을 접촉, 강군의 결백과 교회의 보호의무를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추기경님을 포함한 주교님들께도 이러한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측과의 면담을 통하여, 이 사건의 공정하고 공개적인 수사만이 공권력의 도덕성과 신뢰를 회복하는 길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확인코자 하였으나, 검찰은 면담요구와 우리의 제의를 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러가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진실과 허위의 대결인 이번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모쪼록 진실이 드러나도록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91년 6월 16일

자료 가-2-44 (동아, 91년 6월 16일)

91. 6. 16 동아
金權투입 15일 오
후 3시간을 가두어
문, 정등가 서울
의사장이 15일 오
담판회의 판례자들

公權力투입 自製토록

金추기경, 鄭총리방문 요청

고 압박한 표현을 사용, 오
이런 도 계속 자체에 주
이 데에 鄭총리사
정부는 고화가 처한 어
유언도 고화가 처한 어
제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
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두 사람의 만담은
金추기경의 양쪽이
진정으로 양립적 공생기
제의에 대해 사의를 표하
자적임을 계속적인 자
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부경찰관 20여명의 선
출의 영향은 오래 전부터
불의와 불평의 불타
안정이다. 15일 오전 9
시 반경에 경찰관들의
민회의 집행위원장 추
씨가 기자회견을 하던
기자들을 의섭의 화전
을 방목하다 방과 후
쌍둥이들의 불타고, 바
귀멸의 검찰사관들의
불안감을 느끼는...의
경찰관들은 화탄하여 자
피하였다. 추씨가 다
와 '김기설의' 출현
심한 말을 했다. 피 안
정안자 몇몇이 표정
순환 잡이면서 노니, 부
그때 노 바부판판...하
지 않느냐고 한다...



● 91년 6월 18일 ●

■자료 가-2-46 (동아, 91년 6월 18일)

강씨 자진출두는 자수의미 아니다
 「국민회의」 김홍철(金洪哲)은 강씨의 자진출두를 「자수의미」가 아니라 「국민회의」의 「자진출두」라고 규정했다. 김홍철은 「자진출두」가 「자수의미」가 아니라 「국민회의」의 「자진출두」라고 규정했다. 김홍철은 「자진출두」가 「자수의미」가 아니라 「국민회의」의 「자진출두」라고 규정했다.

「국민회의」 김홍철(金洪哲)은 강씨의 자진출두를 「자수의미」가 아니라 「국민회의」의 「자진출두」라고 규정했다. 김홍철은 「자진출두」가 「자수의미」가 아니라 「국민회의」의 「자진출두」라고 규정했다. 김홍철은 「자진출두」가 「자수의미」가 아니라 「국민회의」의 「자진출두」라고 규정했다.

● 91년 6월 17일 ●

■자료 가-2-45 (동아, 91년 6월 17일)

【第3種郵便物(7)登録可】

明洞성당 姜씨만 보호

백성인정 박해 「국민회의」엔 철수 촉구

「국민회의」가 강씨를 보호하는 명동성당을 중심으로 한 활동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내세웠다. 「국민회의」가 강씨를 보호하는 명동성당을 중심으로 한 활동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내세웠다. 「국민회의」가 강씨를 보호하는 명동성당을 중심으로 한 활동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내세웠다.

「국민회의」가 강씨를 보호하는 명동성당을 중심으로 한 활동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내세웠다. 「국민회의」가 강씨를 보호하는 명동성당을 중심으로 한 활동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내세웠다. 「국민회의」가 강씨를 보호하는 명동성당을 중심으로 한 활동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내세웠다.

「明洞성당 입장」 미묘한 波長

「姜씨 보호 후 국민회의 철수 요구」 안팎

「국민회의」가 강씨를 보호하는 명동성당을 중심으로 한 활동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내세웠다. 「국민회의」가 강씨를 보호하는 명동성당을 중심으로 한 활동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내세웠다. 「국민회의」가 강씨를 보호하는 명동성당을 중심으로 한 활동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내세웠다.



金추기경·鄭총리 면담 후 결정 주목
 「국민회의」 선뜻 응하지 못하고 고심

「국민회의」가 강씨를 보호하는 명동성당을 중심으로 한 활동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내세웠다. 「국민회의」가 강씨를 보호하는 명동성당을 중심으로 한 활동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내세웠다. 「국민회의」가 강씨를 보호하는 명동성당을 중심으로 한 활동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내세웠다.

「국민회의」가 강씨를 보호하는 명동성당을 중심으로 한 활동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내세웠다. 「국민회의」가 강씨를 보호하는 명동성당을 중심으로 한 활동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내세웠다. 「국민회의」가 강씨를 보호하는 명동성당을 중심으로 한 활동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내세웠다.

보도진 城南찾아가자 자취감취

金基高씨 여자친구 洪양 檢警경비속 은신

【城南=尹永煥기자】 부산 자살한 전민선사(前部長) 김기철(金基哲)의 여자친구 홍양(洪陽)이 부산 남구 1동 表洞(表洞)의 지하 1층 지상 2층의 홍양이민 다짐기구가 살...

있는 다른 친척집으로 다시 거처를 옮겨 가족들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양이 이 홍씨가 들은 이 홍씨에 대한 계속적인 신문조사를 요청하고 있다. 홍씨를 만나면 사립학교 이면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조작할 우려가 많아 수사팀에선 경찰을 통해 홍씨를 찾아가고 사립학교의 신...

聖堂 단식농성 계속 尹기철의 대표회 尹기철은 7일 19일 오후 1시 19분 서울 남구 1동 表洞 19층 19호에 있는 홍양이민 다짐기구의 홍양이민 다짐기구가 살...

자료 가-2-48 (동아, 91년 6월 19일)

자료 가-2-47 (동아, 91년 6월 19일)

聖域모회 마감임박 긴장극장

【부산=김기철기자】 부산 자살한 전민선사(前部長) 김기철(金基哲)의 여자친구 홍양(洪陽)이 부산 남구 1동 表洞(表洞)의 지하 1층 지상 2층의 홍양이민 다짐기구가 살...

「聖域모회」 마감임박 긴장극장

○「聖域모회」 마감임박 긴장극장. 「聖域모회」의 마감임박 긴장극장이 계속되고 있다. 「聖域모회」의 마감임박 긴장극장이 계속되고 있다. 「聖域모회」의 마감임박 긴장극장이 계속되고 있다.

자료 가-3-28

수 신 : 천주교서울교구정의평화위원회
발 신 : 전민권인권위원장 서준식
제 목 : 유서대필사건에 대한 공정수사 실현 건

지난 14일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 보낸 유서대필사건의 모든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것을 촉구하는 공한은 강기훈씨의 자진출두문제를 한걸음 구체화하는 데에 기여하였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의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만 강기훈씨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참고인들에 대한 수사 또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강기훈씨의 자진출두를 담보하는 공정수사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홍성은 양을 비롯한 모든 참고인들에 대하여 밀실수사나 강압수사 혹은 범을 무시한 장시간의 수사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의평화위원회의 공정수사 촉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검찰총장의 공정수사 약속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의 중요한 참고인인 승의여자전문대학교 학생 4명에 대한 불법 강압수사가 자행되었으며 홍성은씨를 검찰에서 보호하고 있음이 분명한 사실(6월 19일 한겨레신문)은 대단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사료됩니다. 20세 전후밖에 안되는 승의여전 학생들 3명은 고 김기철씨가 생전에 직접 써준 메모지를 간직하고 있다가 유서대필 문제가 물의를 빚자 이 메모를 전민권으로 전달했다는 그 단순한 내용만을 갖고 무려 16시간 동안 분리되어 강압과 함정수사를 받았으며, 홍성은씨 신병은 여전히 검찰의 장악하에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홍성은씨 문제는 이 사건의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될 중요한 문제로서 검찰이 홍씨를 철저히 은신시키고 있는 현실 그 자체가 공정수사에 실현에 대한 커다란 장애물이 되어 있음은 물론입니다.

우리는 이같은 현실을 보면서 검찰의 공정수사 약속이 그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절감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정의평화위원회의 검찰총장에 대한 공정수사 촉구가 얼마나 무력한 것인가를 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의평화위원회의 공한이 강기훈씨의 자진출두를 실현시키기 위한 형식적 수순에 지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완전히 떨쳐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 강기훈씨의 원만한 자진출두를 원하는 정의평화위원회에 대하여, 그리고 진정 유서대필사건의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원하는 정의평화위원회에 대하여 우리는 당면 다음과 사항에 대한 적극적 노력이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 홍성은씨의 의사에 반한 검찰의 보호를 즉각 중지하고 홍씨가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
- 지난 5월 16, 17, 18일에 걸쳐 56시간의 불법수사를 받고 또다시 검찰의 출두를 요구받고 있는 이영미씨 등 기타 참고인들에 대한 불법강압수사 및 가족에 대한 협박이 자행되지 않을 것.

1991년 6월 19일

전민권 인권위원장 서준식

91년 6월 21일

자료 가-2-49 (동아, 91년 6월 21일)

명동성당-국민회의 마찰(동아, 91.6.21.) 427

明洞聖堂-국민회의 마찰

명동성당-국민회의 마찰(동아, 91.6.21.) 427

平信徒協서민 권수 권영
長期동성 안기아기전거

■자료 가-2-50 (동아, 91년 6월 21일)

「明洞태치」 신도읍직임새局面

○영남 신도읍직임새가
 1. 신도읍직임새가
 2. 신도읍직임새가
 3. 신도읍직임새가
 4. 신도읍직임새가
 5. 신도읍직임새가
 6. 신도읍직임새가
 7. 신도읍직임새가
 8. 신도읍직임새가
 9. 신도읍직임새가
 10. 신도읍직임새가

「보호不可」원칙 확인...철수압력 거셀듯

○영남 신도읍직임새가
 1. 신도읍직임새가
 2. 신도읍직임새가
 3. 신도읍직임새가
 4. 신도읍직임새가
 5. 신도읍직임새가
 6. 신도읍직임새가
 7. 신도읍직임새가
 8. 신도읍직임새가
 9. 신도읍직임새가
 10. 신도읍직임새가

〈宋善善 기자〉

● 91년 6월 22일 ●

■자료 가-1-103 (수사기록 633~636)

○첨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1부
개인별 주민등록표 등본 1부

서울지방검찰청

수신 검사 광상도
제목 수사보고

1991. 6. 22.

서울지검 파견 경찰관
경장 전용갑

* 주민등록표 <생략> (수사기록 635~636)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사하였기 보고합니다.

1. 수사 대상자
본적 서울
주거 서울
학자사 총무 임철수(林澈洙)
만 29세 ()
2. 수사사항

○ 위 사람에 대하여 소재를 수사코져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사무소에 임하여 수사한 바,
 1991. 4. 3자로 본적지인 성북구 길음동 1080번지 옛 위 거주지로 전입하여 동인 혼자 세대주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거주지에 임한 바 동 건물은 약 1년전에 신축된 미니 3층 건물로서, 집주인인 3통장인 변태수 당57세를 상대로 동인의 거주사실을 확인한 바, 동인은 집주인 변태수의 외종 조카로서 무슨 이유로 그런지 알 수가 없는데 전입만 시켜 놓고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여 정확한 거주 사실을 문의한 바 전 거주지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하여 길음동 1080번지에 임한 바, 동 건물은 3층 건물로서 임철수의 가족을 면담코져 하였으나 출타중으로 면담치 못하여 계속 수사중이고,
 ○ 학교자판기 사업소에 대한 수사 동인이 근무하는 학교자판기 사업소에 대한 소재를 수사코져 신촌 일대에 임하여 탐문수사한 바, 특이점 발견치 못하였기 보고합니다.

☐자료 가-2-52 (동아, 91년 6월 22일)

카톨릭내 대표적 보수

司牧會 평신도사도협 어떤 단체인가

평신도사도협은 어떤 단체인가... 평신도사도협은 어떤 단체인가... 평신도사도협은 어떤 단체인가...

平信徒 대표모임... 「가톨릭어」에 게재... 「가톨릭어」에 게재...

平信徒 대표모임... 「가톨릭어」에 게재... 「가톨릭어」에 게재...

平信徒 대표모임... 「가톨릭어」에 게재... 「가톨릭어」에 게재...

平信徒 대표모임... 「가톨릭어」에 게재... 「가톨릭어」에 게재...

☐자료 가-2-51 (동아, 91년 6월 22일)

농성자 강제病院이송 검토

明洞강제病院 朴진파... 明洞강제病院 朴진파... 明洞강제病院 朴진파...

姜씨 24일 출두

韓相親 李秀浩氏

29일 集會 뒤 연행당하겠다



姜씨 24일 출두... 姜씨 24일 출두... 姜씨 24일 출두...



明洞강제病院이송 검토... 明洞강제病院이송 검토... 明洞강제病院이송 검토...

91년 6월 24일

자료 가-1-104 (수사기록 641)

서울지방검찰청

19 검 1991 6 24
1991형 464779
수신
제목 구속통지서

1. 피의자
주거 서울
주민등록번호 64.3.29생

성명 강기훈
연령 당 27년

2. 위 사람은 1991. 6. 24 자살방조
피의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구속하였
으므로 통지함.

3. 구속된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
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및 호주는
각각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 끝.

서울지방검찰청
김사

(수사기록 642~646)

* 변호인 선임신고서 <누락>32)

서울지방검찰청 1991. 6. 24.
1991형 464779
구속통지서
1. 피의자
주거 서울
주민등록번호 64.3.29생
성명 강기훈
연령 당 27년
2. 위 사람은 1991. 6. 24. 자살방조
피의사건으로
서울구치소(구치소)에 구속하였으므로 통지함.
3. 구속된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및 호주는
각각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 끝.
서울지방검찰청
김사

32) 수사기록에 누락되어 있음. 총자료집 II, 30
쪽(공판기록 40쪽) 참조.

자료 가-1-105 (수사기록 647~673)

본적 서울
주소 서울
(동반은 모름)
성명 강기훈 (姜基勳)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1. 가족사항
위 주소지에
부친 강태열(姜台悅) 만 64세 서울 성동구
자양도 소재 신양국민학교 교
사(몇 학년 몇 반 담임인지는 모름).
모친 권태평(權太平) 만 57세 가사.
남동생 강기천 만 24세 포항공대
석사과정으로 기숙사 기거.
여동생 강은옥 만 20세 이대 법학
과 2년 재학.
조부 조모 전북 삼례에서 살고 계
심.

1. 학력관계
저는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에 있
는 무학국교를 졸업하고, 성수동 소
재 성수중학교를 졸업하고, 군자동
소재 세종고교를 졸업하고, 82년 단
국대학교 문리대 화학과를 입학, 85년 8월 시위 등의
관계로 학사경고 제적되었습니다.

1. 경력관계
* 대학 2년경부터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
작했는데, 당시는 학교 내에서 경찰들이 상주하고 있
었고 학원자율과 부도덕한 과정을 통해 집권한 정권
에 대한 비판을 내용으로 하는 유인물만 뿌려져도 그
주모자가 구속되는 상황을 보며 문제의식이 강해지다
가,

* 84년말경에 83년 제적생 복교조치 이후 학교에
만들어진 학원자율회추진위원회에 찾아가 가입을 신

본적 서울
주소 서울
성명 강기훈 (姜基勳)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457-1881
1. 가족사항
위 주소지에
부친 강태열 (姜台悅) 만 64세 서울 성동구
자양도 소재 신양국민학교 교사(몇학년 몇반 담임인지는
모름)
모친 권태평 (權太平) 만 57세 가사
남동생 강기천 만 24세 포항공대 석사과정으로 기숙사기거
여동생 강은옥 만 20세 이대 법학과 2년 재학
조부 조모 전북 삼례에서 살고 계심.
1. 학력관계
저는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에 있는 무학국교를 졸업하고,
성수동 소재 성수중학교를 졸업하고,
군자동 소재 세종고교를 졸업하고,
82년 단국대학교 문리대 화학과를 입학, 85년 8월 시위 등의
관계로 학사경고 제적되었습니다.

청했고, 85년 2월경 민주화추진위원로 개칭되었는데
이때 민주화추진위 위원장으로 피선되었다.
* 같은 해 4월 중순까지 민주화추진위 대표 자격으
로 '총학생회 준비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총학생회
가 발족하고 나서는 총학생회 사회부장으로 활동하였
다. 민주위는 해체되었다. 시내에서의 시위로 5월 말
경에 구류 10일을 산적이 있으며 여름방학 중에는 농
활대 준비위원장을 맡아 농활을 전남 장성으로 다녀
왔다.
* 9월말경 삼민투위 위원장으로 피선되어 10월, 11
월 초까지 교내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하다가 수배가
되었고, 11월 18일 전학련 삼민투위 차원에서 계획된

민정당 연수원 농성사건에 대한 학내계획 및 동원을 책임지고 농성사건에 참여하여 2년형을 선고받았다.

◦ 84년 11월경 시내에서 가두시위에 참가하였다가 구류 10일을 산 사실을 포함하여 구류처분 2회, 구속 1회의 경력이 있다.

◦ 87년 7월말 가석방되어 대통령선거 시기까지 별 일 없이 지내다가,

88년 2월부터 6월경까지 '민중의당 성동지부'에서 선전 담당으로 일하였고, 4.26총선을 전후하여 '민중의당 남해 하동지부'에서 선거운동원으로 일한 적도 있다. 6월말경 나와서

◦ 89년 초순까지 특별한 일없이 지내다가 5월경 전 민련에 가입하여 민생대위 간사로 일하였고 90년 중순경 민생대위가 사회국에 통합되면서 사회국 간사로 일하였고, 91년부터는 총무국으로 부서를 이전하였다. 부장이라는 직책은 간사라는 말이 좋지 않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개칭한 것 뿐이다.

◦ 전민련에 들어가게 된 것은 당시 출범 4개월밖에 안된 상대로 실무인력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전민련 사무실에 찾아가 당시 사회국장인 이종현 씨(후에 그만둠)에게 경력을 소개하고 이력서를 제출한 다음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력서는 총무국에 제출.

◦ 민생대위 간사 시절은 주로 파업사업장의 방문이나 미가맹단체인 전노협 등에 방문하여 사업계획을 조사하는 것과, 사무실내의 일상적인 잡무들이었는데 사회국으로 부서이전 후에도 특별한 업무변경은 없다가,

◦ 90년 11월경부터 컴퓨터를 통한 전국통신체계 담당을 권유받고 총무국내의 상황담당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1. 91년 5월 1일 - 5월 18일까지의 행적

5월 1일

5월 2일

5월 3일

5월 4일

사무실에서 계속 있었다. 이 날은 전국 20여개 지역에서 집회가 있던 날이데 전국상황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나는 낮시간부터 저녁늦게까지 상황정리업무를 사무실에서 보았다. 밤 9시경에 종로 2가에서 6시까지 시위인파가 모였었는데 이때 연세대로 파견되어 있는 전민련 실무자들이 오랜만에 전민련 사무실에 들렀었다. 이들중에는 기설이도 같이 왔었고 그와 인사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다. 정리업무를 마친 시가는 밤12시경이고 전철을 타고 귀가하였다. 기설을 비롯한 몇명의 실무자들은 서울역광장에 시민들이 모여있다는 말을 듣고 밤 9시30분경에 사무실에서 나왔다. 내가 집에 도착한 시각은 오전 1시가 다되어서였고, 4월경부터 시작한 번역일을 하다가 새벽에 잤다.

5월 5일(일요일)

조금 늦게 일어났다.(11시경) 이날 낮 2시경에 영미의 집에서 진수의 생일을 빙자한 모임이 있을 예정이었다. 2시에 구의역에서 진수를 만나 영미집으로 향했고, 중간에 슈퍼에서 주스를 한병사고 정확한 집위치를 알려고 전화를 했는데, 영미가 전화를 받았고 미리 성은이가 와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집으로 향하던 도중에 성은이 마중을 나와서 같이 영미집에 합류.

오후 6시까지 있으며 TV시청, 식사를 같이하였다. 그때 마침 영미의 동생이 들어와 진수, 영미, 성은과 나는 한잔 하기위해 건대앞까지 같이 가서 술을 함께 마셨다. 중간에 영미가 아프다면서 집에 가겠다고 해 그를 바라다주려고 함께 술집을 나선 시각이 약 10시경. 화양리쪽에 있는 호프집에 자리를 잡고 영미를 집으로 보내준 다음, 진수, 성은, 내가 호프집에서 함께 있다가 나는 시각이 밤 12시경이었는데, 화양리에서 성은이 접근처까지 함께 건다가 내가 한잔더하자며 진수와 성은이의 팔을 잡아끌고 건대입구역에 있는 심야포장마차로 데리고 가서 자리를 잡았는데 성은이 집에 바로 가보아야한다면서 30분도 채못되어 일어섰고, 나는 조금 불만이었지만 할 수 없이 나와서 성은과 진수를 보내고 집으로 귀가. 집에오니 1시쯤 되었다. 바로 취침함.

5월 6일(월요일)

전날의 숙취로 출근도 하지 못하고 집에 내내 있음.

5월 7일(화요일)

오전에 출근(10시 조금전)하여 6시 30분경까지 사무실에서 있음. 낮에(시각 미확인) 영미의 직장으로 전화를 하여 7시 30분에 건대역에서 만날 약속을 하였다. 7시 30분에 건대역에서 만나 같이 간단한 식사를 하고 화양리로 걸어가 어버이날 드릴 선물을 샀다. 8시가 지나서 건대정문앞 커피점에 같이 들어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다 10시 쯤전에 커피점을 나와서 건대앞에서 버스를 타고 귀가하였고 우리 부모님께 드리라면서 영미가 카네이션 2송이를 준 기억이 난다. 집에오니 10시가 넘었고 막내동생과 장난을 치던 기억. 새벽 2시경까지 번역일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후 취침하였다.

5월 8일(수)

오전 9시 30분 넘어서까지 자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도 누가 분신했다'며 나를 깨웠고 나는 간신히 일어나 아침 TV뉴스를 보며 기설이가 분신했다는 소식을 알았고, 전화벨이 울려 받아보니 영미가 '기설씨가 분신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전화와 TV뉴스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음. 너무나 커다란 충격에 세수도 안하고 집을 나와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보았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고, 나는 사무실이 비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전철을 타고 사무실로 향했다. 나중에 알고보니 사무실에는 조지국의 김형민 선배가 혼자 있었었고 전화 5대를 혼자 받으라, 기자의 질문을 대답하라 정신이 없어서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즉각 같이 일에 결합하여 일을 처리해 나갔는데 특히 신원확인 문제와 지역상황 전달이 매우 곤혹스럽게 했다. 이름과 학력문제로 각 언론사와 기자들이 몇번에 걸쳐 재확인을 해왔고 이에 일일이 대답하느라 낮 시간은 그냥 지났다. 낮 시간에(시간 기억 잘나지 않음) 연세대에 가 있던 진수로부터 연락이 왔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성은이와 함께 있다고 했고 매우 상태가 좋지 않아 좀 외출 수 없겠느냐고 했다. 사무실 일이 조금 한가해진 틈을 타서(3시경으로 기억) 연세

대로 향했고 학생회관으로 올라갔는데 조금 찾아 헤메다가 여학생회실(?) 안에 서 있는 진수와 성은을 보았다. 성은은 조금 침착해져 있었다. 잠시 서서 성은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고, 밥은 먹었느냐는 질문에 '식사를 아직 안했다, 가자'고 성은이가 말하여 우리 셋은 학생회관 1층으로 내려가 김밥 등으로 요기를 하였다. 내가 분향을 했느냐고 물었고 아직 안했다는 대답에 같이 영안실로가서 분향을 하고 바로 나와 세브란스병원 정문앞에서 나는 길 건너편으로 건너서 543번 버스를 타고 종로5가 전민련 사무실로 향했고 진수와 성은은 다시 연세대로 올라갔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5시가 다되었고(시각 불명확) 나는 사무실에서 각종 잡무(청소, 상황판 점검 등)를 처리하다가 업무 처리가 늦어지게 되었다. 다음날에 있는 9일 대회가 전국 40여개 장소에서 열리는데 시각과 장소를 일일이 확인하고, 타자로 정리했었다. 새벽 1시쯤 되어서야(불명확) 업무가 정리되어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였고 바로 취침하였다.

5월 9일

아침 9시쯤 출근하였다. 사무실에서 하루종일 지역 상황을 점검. 역시 새벽 1시경에 귀가하였을 것이다. 차편은 기억나지 않음.

5월 10일

오전에 사무실에 출근. 낮 시간에 성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좀 만나자는 연락이었다. 사무실을 비울 수 없으니 이쪽으로 와달라고 했고 약 1시간 뒤에 성은이 사무실에 도착하였다. (시점 불명) 마침 사무실에 노운협 상근자들이 몇명 들어왔기에 사무실을 봐달라고 하고 성은을 데리고 종로5가 기독교회관 근처의 '봉주르'라는 커피점에 함께 갔다. 많이 명랑해져 있어 다행이라 생각하고 담소를 나누다가 성은이 '검찰에서 조사를 한다는 연락이 왔다'면서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을때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왔다. 나는 왜 내가 검찰조사를 받느냐고 반문하면서 모든 것은 사실에 기초하여 솔직히 이야기를 하라고 대답했고, 강압수사에 대해서 의연히 대처하라고 하였다. 성은이가 다시 기설과 내가 아는 것은 형이 소개시켜

주어서인데 이 문제는 형이 직접 나에게 소개시켜 준 것으로 하고 영미는 빼라고 했고, 나는 구체적으로 집 근처에서 너를 우연히 만나 기설의 소개를 제한한 것으로 하자고 하였다. 성은이 동의. 약 1시간 정도 같이 차를 마시고 헤어졌다. 나는 사무실로 돌아갔고 성은은 사무실에 들렀다가 밖으로 나갔다. 그날 기설의 추모제가 명동성당에서 열렸는데 계속 사무실에 있던 나는 약 9시 30분경 진수의 전화를 받았다. 추모집회에 영미, 성은과 같이 참가하였는데 지금 끝났고 같이 보자고 하였다. 내가 종로5가 도이치호프로 오라고 했고, 10시가 넘어서 사무실에 계속 있는데 왜 안오냐는 독촉전화가 왔다. 잠시 후 사무실을 출발하여 약속장소로 가니 셋이 생맥주를 한잔씩 시켜놓고 있었다. 그날 집회의 양상이야기, 농담등을 주고 받다가 12시가 가까워 술집을 나왔고, 종로6가에서 좌석버스편으로 4명이 같이 타고 화양리에서 내렸다. 같이 걸어서 성은을 집까지 배려해주고, 영미를 배려해준다음 진수와 헤어졌다. 집에 오니 1시가 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5월 11일

5월 12일

일요일이라서 집에서 쉬려고 했는데 원래 14일로 정해진 기설의 장례가 오늘 치루어진다는 소식을 뉴스를 보고 알았다. 부랴부랴 사무실로 달려 갔는데 사무실이 잠겨 있었다. 이때가 오전 11시가 되었을 것이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청소를 시작했고 수시로 연세대 상황에 전화를 하여 장례행렬의 이동상태를 문의했다. 4시30분(불명확)경 장례행렬이 전민련 사무실앞에 도착했고 성은, 영미, 진수를 만났다. 약 30분간 머물다가 같이 차를 타고 장지로 향했다. 하관의식에 같이 참여하고 모두 끝난 것이 9시경 버스편으로 서울을 향했고 성은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어야 할 것 같아 예의 4명이 종로5가에서 같이 내렸다. 도이치호프로 들어가 약 1시간 정도 같이 술을 마셨고, 영미, 성은을 좌석편으로 배려다 주었다. 진수와 나는 전민련 사무실에 들어가 같이 잤다.

5월 13일

아침에 일어나서 사무실에서 일을 보다가 낮 시간에 영미 직장으로 전화를 해서 6시쯤 신촌에서 만나기로 하고 진수와 함께 신촌시장으로 향했다. 평소 안면이 있는 수연이가 나와 있었다. 우리 셋이 신촌(모?) 소평 2층의 호프집에 먼저 들어가 자리를 잡았고, 잠시 후 내가 약속장소에 나가 보니 영미와 정이가 나와 있었다. 5명이 합류하여 같은 장소에 30분쯤 있다가 신촌시장 근처의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같이 술을 마시다가 10시경에 헤어졌다. 전철편으로 귀가하려다(?) 사무실로 돌아와 취침함.

5월 14일

강경대 장례식 날이어서 이날 역시 전국집회가 있었다. 전국 상황정리업무를 보다가 오후 10시경 운구행렬이 연세대로 되돌아 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무실에서 취침하였다.

5월 15일

5월 16일

15일(혹은 시점이 명확치 않으나 13일일 수도 있음) 성은이가 연행되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되었는데 영미가 학원에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직장에 전화를 해보고 알았다. 낮 시간 이전에 안면이 있던 학교선배 박원순 변호사에게 찾아가 연행사실을 알리고 걱정이 된다고 하자 별일 없을 것이라 하여 돌아왔다. 저녁 9시경 집에 못들어갈 것 같아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집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다고 했고 나는 이적표현물 문제가 걱정이 되고 계속 학교동창들이 연행된다는 사실을 대책회의에 파견나가 있는 전민련 실무자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연세대로 향했는데 진수와 함께 동행하였다. 모두들 걱정은 하면서도 워낙 바쁘고 큰일이야 있겠느냐는 분위기여서 내일 아침 기자회견에 강제연행 사실을 알리는 정도로 하자고 하고, 서클룸에서 취침.

5월 17일

아침 장례식에 관한 기자회견평을 하는 과정에 잠깐 내가 연행사실과 압수수색에 대해 이야기함. 이후

영미집과 학원에 번갈아 전화했으나 아직 안왔다는 연락을 듣고 매우 걱정하였으며, 집에 전화를 하여 어머니에게 두집 어머니들이 걱정할 것 같으니 찾아가 보라고 전했던 기억이 난다. 낮과 저녁시간에 약간의 허드렛일과 전화받는 일을 하다가 밤늦게 취침하였다.

5월 18일

오전 9시 운구행렬을 따라 장례식에 참여했다. 오후 4시경까지 이대입구 근처에서 공방전을 구경하다가 갑자기³³⁾ 내팔을 나꿔채는 전민련 실무자 몇명과 만났다. 국민일보 석간을 보여주며 유서대필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사실을 알았다. 너무나 황당하여 진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한겨레신문사를 찾아가 강모 기자를 만나서 나의 결백을 이야기한 다음, 오후 9시경 대책회의 명동성당에 합류하였다. 이후 명동성당에 머물게 되었다.

1. 주변인물

김기설

90년 12월 말경에 있었던 전민련 송년회에서 처음 보았다. 새로 전민련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하여 인사를 나누었다. 자신을 한양대 84로 소개했다. 이후 그가 수습배치가 된 것이 91년초였고, 그후 사무실 동료로서의 일상적인 관계를 맺었다. 1월 중순경 나에게 여자친구를 몇차례에 걸쳐 소개해, 달라고 하여 그 즈음 영미와 함께 만난 성은에게 기설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만나보지 않겠느냐고 의사를 타진했고 성은은 "좋다 부담감이 없다면"이라고 답하여 그를 성은에게 소개시켜주게 되었다. 첫번 만남은 1월 20일 정도였고, 영미, 성은, 기설과 내가 함께 자리를 했다. 영미, 성은, 나는 집방향이 같아 기설을 떼어놓고 귀가 했는데 다음날 기설에게 제대로 소개를 시켜주지 않았다고 항의를 받았다. 그후 2월 초순경에 다시 4명이 만나서 영미와 나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다. 그와 나는 사무실내에서 업무의 성격(외근과 내근)도 판이하고 자주 접할 기회가 없어 각별한 관계는 아니었다. 성은과의 관계는 이후에 관심을 쏟지는 못했다. (접촉

33) 수사기록 장수가 659에서 670으로 되어 있으나 내용은 이어져 있음.

은 행적에 기술)

홍성은

90년 가을쯤에 영미와 우연히 같이 만나서 안면이 어느 정도 있다. 3차례 정도 같이 만났고 기설을 소개시켜 주면서 2번정도 보았고, 영미와는 비교적 친한 사이 같았다. (접촉은 행적에 기술)

이영미

학교 다닐때 둘이 만난적은 없으나 얼굴 정도를 알고 있다가 89년말 동문회 사무실에 들렀다가 우연히 만났고, 집이 같은 방향이어서 쉽게 친해졌다. 학과 친목모임에도 2-3 차례 내가 참석하면서 집에 배려다 주는 과정에서 매우 가까워졌다. 평소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사이이다.

서준식

그전에는 이름만 알고 있다가 91년 3월경 전민련 인권위원장에 취임하면서 처음 인사를 나누었다. 업무상의 관련성이 없어서 친밀하지는 못했는데 명동성당 이후 인간적인 면을 조금 알게 되었고, 유서대필문제에 기설과의 관계때문인지 열성적으로 진상을 밝히려 노력하고 있다.

김선택

89년 전민련 조직국에 그가 있을 때 알았다가 중간에 그만두어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다. 91년 초부터 상근인력이 부족한 전민련 사무차장으로 들어와서 다시 만났고, 총무국과의 업무관계로 가끔 상의를 하는 사이임. 5. 18일부터 며칠간 명동성당에 합류했을 때 계속 보았다.

방수연

학교 후배이다. 내가 학교 다닐때는 만난적이 없고 90년경에 몇차례의 과모임을 그가 경영하는 카페에서 했기에 인사를 나누는 사이. 매우 사교성이 강하여 가끔 카페에서 사람들과 만날 약속을 했고 그때 몇번 만남.

김진수

85년 총학생회에 있을때 사학과 학회장이었던 그를 만나 처음 인사를 나누었고 내가 구속된 이후에는 교류가 없었다. 87년경에 그가 구속이 되었을 때 어머니께 그리 만났고 그의 공판에도 나가본 적이 있다. 이후 89년경 그가 민주동문회 간사로 있을 때 가끔 들리 만나면서 친밀해졌고, 인간적인 관계가 돈독한 편이다. 그가 가끔 사무실로 연락하여 만난 일이 91년 초반에서 최근까지 있다. 5월 12일경부터 심한해있는 나와 함께 사무실, 18일 이후에는 명동에 같이 있다가 5월말경에 나갔다.

임철수
과 동기동창인데 82년도에 그가 군입대를 하면서 거의 모르는 사이이다가 90년초 과모임에 내가 나가면서 2번정도를 여럿이 함께 만난 일이 있다. 친밀한 관계는 아님.

임근재
전청협에 있다고 들었고 이전에는 전혀 모르다가 명동성당에 합류하면서 인사를 나눈 정도의 관계.

장준호
잘 모르는 관계. 얼굴은 아나 직접 이야기해본 기억이 없다.

1991년 6월 24일
강기훈
[자료 가-1-106 (수사기록 674~675)]

서울지방검찰청

수신 검사 임철
제목 수사보고

서강대 김기철 분신자살 사건과 관련, 참고인 방수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사하였기 보고합니다.

1. 인적사항

주거: 서울
성명: 방수연 (당 26세)

2. 수사결과

• 방수연의 주거지인 []에 임하여 모 염경숙(52세)을 상대로 탐문수사한 바, 방수연이가 5월 초순경부터 5월말까지 집에 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탐문한 바, 집에 오지 않았다고 하며 전화만 두어번 통화를 했다고 함.

• 방수연 소재수사에 당하여 동인의 부 방충균(56세)가 경영하는 명동소재 풍전분식(757-7887)에 임하여 방충균을 접한 바, 방수연이는 평상시 10-15일 사이에 한 번씩 집에 들른다고 하며 6월 22일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23일 아침에 남편 박황중(26세)가 근무하는 흥천 부대로 면회를 갔다고 하며 그 이후 집에 오지 않았다고 함.

• 방수연의 시댁을 상대로 수사한 바, 시댁 주소지인 []에 임하여 방수연의 시어머니 김상순(74세)과 동서인 손미자(26세)를 상대로 방수연에 대하여 탐문한 바, 시댁에는 동서 손미자가 세 살된 자식과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다고 하며 방수연이는 3-4개월전에 한번 왔다가 후로 가끔 전화만 오고 집에 오지 않았다고 함으로 수사보고 합니다.

1991. 6. 24
김철서기 이병호

[자료 가-1-107 (수사기록 676)]

서울지방검찰청

수신 검사 임철
제목 수사보고

명에 의거 강기훈 자살방조 피의사건에 관한 참고인 이지혜에 관한 소재 파악(주소 :

[] 수사를 하였는 바, 동인의 부 이병호에 의하면 동인은 91. 5. 15.경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두절 된 상태임으로 연락 및 거처가 확인되는데

로 부 이병호가 직접 데리고 당청에 출석하겠다고 하며, 이지혜의 직장인 동아일보사에(조사부 근무 전화: 721-7184) 방문한 바, 조사부 직원 안용남에 의하면 이지혜는 아르바이트직으로 근무하다 91. 5. 22.경 동 조사부를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기 보고합니다.

1991. 6. 24
강력부 김철주사보 안택영

[자료 가-1-108 (수사기록 677~680)]

서울지방검찰청

수신 박경순 검사
제목 수사보고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사하였기 보고합니다.

1. 인적사항
본적: 경남
주거: 서울
김진수(金鎭壽)
만 28세 (1963. 3. 3.)
주민등록번호(

2. 수사사항
상기 명에 의거 김진수를 동행코저 주거지에 답사 소재수사별인 바, 부친 김인길은 노동 및 낚싯배 생활하고 모친 장두업은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대신화물운송내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김진수의 여동생 김진숙을 상대로 수사한 바 1991. 5. 8.일경 집을 나간 후 김진수한테 가끔 전화 걸러오고 형사들이 찾아갈 것인데 부모님들한테 아무 걱정 말라고 안부전화는 것 뿐이고 귀가치 않고 있기에 보고합니다.
전화

1991. 6. 24
경장 이종택

* 주민등록표 <생략> (수사기록 679~680)

[자료 가-1-109 (수사기록 681~683)]

서울지방검찰청

수신 검사 윤석만
제목 수사보고
1991. 6. 24

다음과 같이 수사하였기 보고합니다.

1. 수사대상자
본적: 충북
주거: 서울시
성명: 김현수(金鉉洙) 만 29세

2. 수사사항
본 명은 당청에서 수사중인 중요 참고인으로 임의동행코저 주거지 동사무소에 임하여 거주 여부 확인한 바, 위 주거지에 부 김진영 63세, 모 정귀례 62세, 형 김종수 36세와 같이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중앙문화사에 다니고 있다하나 확인하지 못하였고, 은밀히 탐문한 바, 지난 번(21일) 광역의회선거에 투표한 사실이 있고, 곧 결혼한다는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위 주거지에 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계속 잠복 근무하였으나 특이사항 발견치 못하였으며, 본명을 임의동행코저 계속 잠복수사하겠기 수사보고합니다.

첨부 세대별 주민등록표 1매, 개인별 주민등록표 1매. 끝.

서울지방검찰청 1006호 근무
경장 안상길

* 주민등록표 <생략> (수사기록 682~683)

☐자료 가-1-110 (수사기록 684~685)

서울지방검찰청

수신 검사 남기춘 1991. 6. 24
제목 수사보고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사하였기 보고합니다.

1. 인적사항

본적 경기
주거 서울
임무 영

2. 수사사항

상기자를 검거코저 수사한 바 상기자는 시내 종로구 종로5가 소재 아성빌딩내 전민련 사무실에 출입한다는 정보에 의하여 동대문경찰서 정보2계 근무 전민련 담당 형사를 상대로 임무영의 소재 및 전민련 직책 등에 대하여 문의한 바 임무영은 1990.초부터 전민련 사회부장으로 있으면서 강기훈, 남중현, 이동진 등과 사회부 일을 하고 있었으며, 90. 8. 15. 기하여 범민추 간사로도 활동하다가 현재는 전민련 사회부장으로 있으면서 각종 시위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임무영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소재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전화로 임무영의 누나집일 것이라고 하여 전화조회한 바 시내 [] 과 가입자는 이주옥으로 되어 있어 방학2동 사무소에 확인한 바 위 주거지로 임무영이 등재되어 있기에 수사보고합니다.

파견근무
경장 한 형 섭

☐자료 가-1-111 (수사기록 688)

서울지방검찰청

수신 송명석 검사 1991. 6. 24
제목 수사보고

명에 의하여 위건 아래와 같이 수사하였기 보고합니다.

1. 수사대상자 인적사항

주거 경기
이보은 만 22세
주민등록번호

2. 수사사항

위 수사대상자 이보은을 동행코저 주거지에 임하여 수사한 바 주거지는 주민교회와 함께 붙은 2층 건물로 1층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주민교회, 이보은이 가족들이 살고 있는 사택, 2층은 신용협동조합 유치원 등이 있고, 이보은은 김기철 분신사건 이후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위 교회 총무가 이야기하고 가족 중에는 언니가 집에 있고 다른 가족들은 보지 못하고 이보은이 주거지에 없어 동행불능으로 수사보고 합니다.

경장 박기덕

☐자료 가-1-112 (수사기록 689~692)

서울지방검찰청

수신 검사 박경순
제목 수사보고

명에 의거 김선택 을 임의동행하고자 동인의 주거지인 서울

입한 바,

1. 위 장소는 문이 잠겨져 있고 초인종을 수차례

걸쳐 눌렀으나 응답이 없고 전화는 신호음이 가나 받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재중으로 사료되고,

2. 주변인물을 상대로 동인의 소재를 탐문한 바,
- 위 장소 앞에 위치한 [] 에 거주하는 자 모두 출타중이어서 탐문치 못하고
- 반장 임무를 수행하는 [] 거주 박충화(여, 전화 [] 상대로 탐문코자 하였으나 출타중이어서 탐문치 못하고,
- 동 아파트 경비원 서복만(남, 당51세, 전화 [] 상대로 동인을 탐문한 바 김선택을 가장 최근에 본 것이 약 1개월 전이며 당시 수사기관에서 나온 듯이 보이는 3, 4명이 동인을 계속 미행하는 것을 보았기에 기억하며 김선택 가족에 대하여는 아는 바 없고 그의 사형에 대한 것은 아는 바 없다는 언동이었기에,

3. 소재파악 불능으로 임의동행치 못하였기 보고합니다.

1991. 6. 24

검찰서기 김병기

* 주민등록표 <생략> (수사기록 690~692)

☐자료 가-1-113 (수사기록 693~695)

서울지방검찰청

수신 주임검사 1991. 6. 24
제목 수사보고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사하였기 보고합니다.

1. 수사대상자 인적사항

본적 서울시
주거 서울시
무직 원순용(元淳龍)

만 28세

2. 수사사항

가) 본건 원순용에 대하여 소개수사한 바, 위 주소지에 주민등록등본은 되어 있으나 거주하지 않는다고 위 세대주인 본명의 외숙모 배성옥(당 46세) 진술하고 있고, 학창시절 운동권학생으로 집안식구들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하여 원순용이가 하는 것에 대하여는 집안식구 모두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
나) 계속하여, 원순용의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 [] 에 임하여 탐문수사한 바, 약 2-3 일전에 나갔다가 6. 23.에 들어와서 잠을 자고 6. 24. 08:00에 아무런 말도 없이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며 집에는 가끔씩 들어온다고 진술하고 있어 주민등록등본이 등재된 외숙모집(T []) 과 부모님의 집인 (T [] 상대로 계속 수사중이오니 보고합니다.

서울지검 강력부 근무

경장 김상용

* 주민등록표 <생략> (수사기록 695)

☐자료 가-1-114 (수사기록 696~700)

서울지방검찰청

수신 주임검사
제목 수사보고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소개수사하였기 보고합니다.

1. 수사대상자 인적사항

본적 서울
주거 서울
성명 최재인(한자 미상)
주민등록번호

2. 수사사항

수사대상자인 최재인(당 25세)을 상대로 소재파악 하여 발견 접견코저 동네주민들을 상대로 탐문수사한 바,

위 최재인은 작년(90.2) 서울대학교 서양학과를 졸업하고 직업없이 놀고 있다는 사실 확인하고 위 최재인의 모친 한윤화가 운영하고 있는 윤화약국에 임하여 최재인의 친구로 위장 행방에 대하여 수사한 바 당일 아침 일찍 밖으로 나갔다는 사실 확인하고 윤화약국 주변상대로 잠복하였으나 출현치 않아 임의동행치 못하였기 보고합니다.

3. 첨부

가) 최재인의 주민등록 등본 1통

나) 최재인의 주민등록 초본 1통

다) 최재인의 주거지 약도 1부

1991. 6. 24

서울지방검찰청 강력부 1006호실

경장 김도영

* 첨부 자료 <생략> (수사기록 698~700)

☐자료 가-1-115 (수사기록 701~703)

서울지방검찰청

수신 검사 남기춘

1991. 6. 24

제목 수사보고

위건 명에 의하여 수배중인 표홍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사하였기 보고합니다.

1. 수배자 인적사항

주거 서울

학생 표홍철 ()

1968. 9. 24생 만 22세

주민등록번호

2. 수사사항

상기 수배자 표홍철을 검거코저 주소지에 임하여 수사한 바 총 주택으로 4세대

가 살고 있으며 그중 표홍철이 거주하는 방은 도로변 1층에서 방한칸을 동인의 모 박영숙이 세들어 2식구가 살고 있으며 표홍철은 약 1개월전부터 동 주소지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주민연동이고, 모 박영숙은 낮에는 하치인지로 파출부로 나가며 야간에는 상호불상 술집주방에서 종사하다가 저녁 1200경에야 귀가한다는 정보로 정보원을 활용 표홍철에 대하여 계속 소재 탐지중이유기 수사보고합니다.

첨부 : 표홍철가 약도 1부.

파견 경찰관

경장 이병상

* 약도 <생략> (수사기록 703)

☐자료 가-1-116 (수사기록 704~708)

서울지방검찰청

1991. 6. 24

수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참조 담당검사

제목 수사보고

위건 임근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사하였기 보고합니다.

1. 인적사항

본적 강원도

주거 서울

무직 임근재

만 27세 ()

2. 수사사항

본명에 대하여 탐문수사코저 11통장인 같은 동

거주 심도부동산(T

영영 지운용 당 56세를 면접 수사한 바 임근재는 경찰관들이 잡으러 수차례 찾아왔었으며 최근에는 안기부 직원들이 찾으러 다니고 있다고 진술하며 학교에 다닐 때 가끔 보고 현재까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므로 동인의 집에 임한 바 가족이 전부 출타하고 문이 잠그어져 있어 집주인 박봉덕 당 61세의 처장부암 당 65세를() 상대로 수사한 바 약 10년전부터 보증금 없이 월 7만원씩을 받고 있으나 몇달씩 짐세도 밀리고 살고 있어 나가라고도 못하고 있으며 부 임용호 당 47세는 건축공사를 따라다니며 날뽕팔이를 하고 모 유정에 당 46세는 상호불상 목욕탕에서 때밀이를 하며 겨우 사는데 모는 몸이 아파 병원에 다니며 동 임근재는 학교 졸업후 금년 3월 초순경에 한번 보고 현재까지 본 사실도 없으며 가족도 소재를 모르고 있다고 하여 계속 수사중이유기 보고합니다.

첨부 : 임근재 약도 1부

경장 김종남

* 약도, 주민등록표 <생략> (수사기록 706~708)

☐자료 가-1-117 (수사기록 708-1~708-4)

본적 ; 경기도

주소 ; 강남구 3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이 정 (李 丁)

1. 학력

단국대학교 화학과 졸업

2. 가족관계

부모, 남동생 1명

3.

강기훈 ; 90년 1월 정도에 과 선배들과의 만남

의 자리에서 알게 됐다.

· 이영미 ; 같은 과 친구로 86년도부터 친해지게 됨.

· 홍성은 ; 같은 과 85로 얼굴만 알다가 영미를 통해서 알게 됨.

· 김진수 ; 동문 모임에서 알게 됨.

· 방수연 ; 88년도에 친구 통해서 알게 됨.

5월 8일 아침 9시 30분~10시경 영미 전화를 받고 그날 아침에 서강대에서 분신한 사람이 성은이 시귀던 사람이라고 성은이 다니는 학교에 연락 좀 해달라고 해서 영미 전화 끊고 의정부 114에 전화해서 여상전화번호를 알으켜 달라고 했다. 몇 군데(2-3군데) 전화를 해봤는데 홍성은이란 사람은 없다고 해서 연락을 못했다.

그 이후 2-3번 영미에게 전화가 오고 연대에서 7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조금 일찍 도착해 영미, 성은, 진수형을 만났다. 계속 넷이서 같이 돌아다니다 밤이 늦어 영미는 가고 진수형하고 나와 들어서 성은이 옆에 있기로 했다. 성은이가 회의하는데 계속 옆에 붙어 있다 새벽 3시-4시에 자서 6시 30분경에 일어났다.

성은이가 9일 검찰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계속 같이 행동했다. 5시경 국민대회에 참석하고 가방을 연대에 두고 와서 연대로 다시 가서 가방을 갖고 11시경 집에 들어갔다.

10일은 집에서 쉬었고 11일날은 출근했고,

12에는 선배 결혼식에 갔었다 → 잠실 올림픽공원.

13일 영미에게 연락이 와서 신촌에서 만나기로 했다. — 아는 척을 하고 나서 기훈이형 — 34) 기다리는데 뒤에서 형이 나와 그 건물 호프집으로 들어갔더니 진수형, 수연언니가 있어 있는 술만 마시고 나와 소주집으로 가서 5명이 술을 먹었다. 술을 먹다 성은이 얘기가 나와 걱정된다고 영미보러 전화해 보라고 해서 연락했더니 검찰청에 소환됐다 해서 걱정하며 헤어졌다.

그 이후 영미랑 몇번 통화하고 영미가 검찰청으로 들어온 날 영미한테 전화했더니 영미가 학원에 안나

34) 복사 불량으로 판독 불가. (수사기록 708-3정 상당.)

왔다고 해서 집으로 했더니 집에선 제 시간에 학원으로 갔다고 해서 기훈이형한테 전화해서 영미가 없어졌다고 했다. 그 이후 무슨 소식이 있나 해서 영미네 집과 기훈이형에게 연락했었고 토요일 아침에 영미 나온다고 해서 '나도 검찰청에 가겠다' 하고 검찰청에 왔다. 검찰청에서 나간 후 영미네 집에 들르고 집으로 갔다.

다음날 영미한테 집이라고 전화가 와서 영미한테 갔었다. 영미가 기훈이형한테 별일 없냐고 물어봐서 별일 없는 것 같다고 했다.

----- 만나러 갔었다. 그리고 -----35)

20일 저녁에 기훈형 어머니께서 전화하셔서 21일 1시에 이대역에서 만나기로 했다. 만났더니 성은이 집에 가서 부모님 위로해 드리라고 해서 부모님을 한번도 만난 적이 없어서 가서 별로 안 좋을 거라고 했더니 그렇다면서 같이 명·성으로 기훈이형을 만나러 갔다. 그리고 집에 왔다.

22일 출근하고 잠시 일보러 나갔다 온 사이에 검찰에서 다녀갔다는 말 듣고 퇴근하고 친구집으로 갔다. 친구집에서 담담해서 책을 사러 나갔다 지갑을 잊어버려서 그 친구네 집에서 나와서 다른 친구네 집으로 갔었다. 그 사이에 2번 명·성에 가서 기훈이형 진수형을 만났고 1번 수연언니 보았다. 영미도 2번 보았다. 6월 21일 집에 들어갔다.

1991. 6. 24 이 정
[자료 가1-118 (수사기록 708-5~708-14)]

진 술 조 서

성 명 이 정 (李 丁)
주민등록번호
주 거 서울 기 전화
본 적 경기도
직 업 무직 연 령 24세 1967. 3. 17. 생

35) 복사 불량(수사기록 708-4정 상단).

피의자 강기훈에 대한 자살방조 피의사건에 관하여 1991. 6. 24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하다.

1. 본인은 서울 기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부 이능준(54세, 공업), 모 김영순(52세, 가사), 제 이산(20세, 대학생)과 함께 살고 있고, 1989. 단국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1. 본인은 친구 홍성은의 애인인 김기설이 1991. 5. 8 분신자살한 사실과 관련하여 진술하고자 합니다.

이때 진술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임의문답하다.

문 : 홍성은은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요
답 : 1990. 말경 친구인 이영미를 통해서 서로 알게 되었고, 이미 단국대학교에 다니던 중 얼굴은 알고 있었습니다.

문 : 이영미는 어떤 관계인가요
답 : 단국대학교 화학과에 입학하여 같은 과 급우로 알게 되었으며 1986년부터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문 : 홍성은의 애인인 김기설을 아는가요
답 : 1991. 4. 중순경 이영미로부터 홍성은이 전민련 소속 사람을 사귄다는 것을 들었고 같은 해 5. 8 김기설이 투신 후 김기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영미는 그 애인인 강기훈과 함께 김기설을 홍성은에게 소개하여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문 : 강기훈은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요
답 : 1990. 1.경 단국대학교 화학과 동문 7, 8명이 모인 자리에서 소개받아 알게 되었습니다. 1990. 7.경 이영미로부터 그녀가 강기훈과 사귄다는 것을 들었고, 그 이후 두세차례 만나 단순히 차를 함께 마신 적이 있습니다.

문 : 그의 김기설의 죽음 이후에 만난 사람이 있는가요
답 : 단국대학교 민주동문회 회원인 김진수, 방수연, 인재근, 강기훈 어머니 등을 만난 사실이 있습니다.

문 : 김진수는 어떻게 알고 있는가요
답 : 1990. 3.경 단국대학교 민주동문회 총회에서 알게 되었으며, 당시 동문회 간사였고 1991. 5. 8. 연

세대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문 : 방수연은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요
답 : 1988. 초경 친구 김은영을 통하여 학교선배인 방수연을 만나 가깝게 지내던 중 1991. 5. 13. 이영미가 만나자고 하여 나갔다가 우연히 만났습니다.

문 : 인재근은 누구인가요
답 : 김근태의 처로 본인이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 : 김기설의 투신자살 사건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요
답 : 1991. 5. 8. 09:30경 신도림동 소재 저의 집 사무실에서 이영미로부터 당일 아침 분신한 사람이 홍성은이 사귀던 사람이라고 전화를 받아 알게 되었습니다.

문 : 이영미로부터 받은 전화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 : 당일 아침에 서강대에서 분신한 사람이 홍성은의 애인이라고 성은이 근무하는 학교에 연락을 하여 달라고 해서 의정부 전화국 안내를 통해 여상전화번호를 확인하여 몇 군데 전화하였는데 근무처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영미로부터 두세차례 전화가 왔고 홍성은을 찾지 못하여 연세대에서 당일 19:00경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문 : 연세대에 가서 이영미를 만났는가요
답 : 약속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여 이영미, 홍성은, 김진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문 : 이영미 등을 만나서 무엇을 하였는가요
답 : 홍성은을 위로하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연세대에 있는 영안실에 가 보았으며 밤 늦게 이영미는 귀가하고 저와 김진수가 홍성은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 있게 된 경위는 홍성은이 김기설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은 것 같아 보호하여 주기 위하여였습니다.

문 : 홍성은과 연세대에 함께 남아 무엇을 하였는가요
답 : 다음날인 5. 9. 06:30경 일어나서 산책 등을 하다가 검찰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대책위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17:00경 시청 앞 국민대회에 저와 김진수는 참가하였으며 연세대로 다시 돌아와 23:00경 홍성은과 함께 귀가하였습니다.

문 : 검찰조사에 대하여 홍성은과 이야기를 나누었는가요
답 : 홍성은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이영미에 대하여 어떻게 하였으면 하느냐 의견을 저에게 물어 이영미를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고 말했고 김진수는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 : 5. 10. 이후에는 어떻게 하였는가요
답 : 5. 10. 피로하여 집에서 쉬었고 5. 11. 사무실에 출근하였으며 5. 12. 선배결혼식에 참석하는 등 특별한 일이 없었고, 5. 13. 이영미로부터 전화가 와 신촌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문 : 5. 13. 이영미와 만나서 무엇을 하였는가요
답 : 5. 13. 19:00경 크리스탈백화점 부근에서 이영미를 만났고, 강기훈이 오기로 했다고 하여 기다리는데 강기훈이 뒤편 건물 안에서 나와 그 건물 호프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김진수, 방수연이 미리와 있었고 술을 마시고 부근 주점으로 다시 옮겨 술을 먹었습니다.

문 : 홍성은에게 연락하지 않았는가요
답 : 술을 마시다 홍성은의 얘기가 나와 걱정된다고 영미한테 전화하여 보라고 하였고, 홍성은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으로 소환되어 간 것을 알았습니다.

문 : 홍성은이 검찰청에 간 것을 알고 어떻게 하였는가요
답 : 강기훈은 대책위에 알려야 한다고 전화를 하였고 모두 홍성은에 대하여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영미는 자신도 소환될까봐 우려하였습니다.

문 : 당시 이영미가 검찰청에 소환되어 조사받을 때 진술한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지 않았는가요
답 :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 : 이영미의 진술에 의하면 그 당시 이영미는 김기설을 모른다는 등의 조사에 대비하여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 그런 말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 : 이영미가 검찰에 소환되어 온 것을 언제 알고 어떻게 하였는가요
답 : 5. 16. 자정경 영미집에 전화하여 알았고, 5. 18. 강기훈에게 연락하니 영미와 성은의 어머니, 강기훈의 어머니, 인재근 등이 검찰청으로 간다는 것을 듣

고 저도 검찰청으로 와서 인제군, 강기훈의 어머니를 만나 검사실로 찾아갔으나 면회가 되지 않아 돌아왔습니다.

문 : 5. 18 이영미가 귀가한 후 서로 만났는가요

답 : 5. 19. 1200경 이영미의 집으로 찾아가 만났으며, 이영미의 어머니가 있어 많은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영미의 부탁으로 명동성당에 강기훈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문 : 강기훈을 만나 어떤 이야기를 하였는가요

답 : 강기훈이 저에게 이영미가 잘 있느냐고 하여 그렇다고 대답하고 영미가 연락을 기다린다고 전해주었습니다.

문 : 이영미가 조사받는데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는가요

답 : 제가 이영미로부터 들은 것에 대하여 말하였는데 그 내용은 홍성은이 소지하고 있는 메모지, 강기훈의 집에서 나온 신나통 등에 대해 말하여 주었고, 강기훈은 메모지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고 말하였고 그의 특이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문 : 홍성은을 만나 보았는가요

답 : 5. 20. 저녁 기훈의 어머니가 전화하여 5. 21. 1300경 이대역 앞에서 만나, 기훈의 어머니가 성은의 집에 가서 성은이 없어졌으니 부모를 위로하라고 하여 그 부모를 만난 적이 없어 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대답하였으며 그후 함께 명동성당으로 기훈이를 만나러 갔다가 귀가하였습니다.

문 : 5. 22 검찰청에서 진술인을 찾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였는데 나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검찰청에 나가는 것이 겁이 났고 선배에게 이석태 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구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어머니가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아 나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더라는 말을 전해 듣고 친구집으로 피신하였습니다.

문 : 피신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가요

답 : 한남동에 있는 친구 배필수의 셋방, 신림동에 있는 친구 김정아의 집, 수유리에 있는 친구 임영미의 화실, 흑석동에 있는 친구 노정은의 집에 피신하였습니다.

문 : 피신할 동안 강기훈 등을 만나보았는가요

답 : 6. 초순, 중순 두 차례에 걸쳐 명동성당으로 강기훈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강기훈, 김진수, 이영미를 만났고 방수연을 1회 보았습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피하여 있는 장소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문 : 김기철의 수첩을 연세대에서 본 적이 있는가요

답 : 5. 9. 연세대에서 홍성은과 함께 있을 때 전민련 소속 성명불상자가 수첩을 가지고 와서 전화번호 적힌 부분에 동그라미 등 표시가 되어 있는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때 전화번호가 적힌 곳에 한상렬의 전화번호가 맨 위에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복사되어 나가면 곤란하다고 하면서 윗부분 일부분을 찢어내었습니다. 단 직접 본 것이 아니고 말로 들었습니다. 다만 수첩이 원본인지 복사된 것인지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때 진술인의 어머니인 김영순에게,

문 : 이정의 어머니인 김영순인가요

답 : 그렇습니다.

문 : 이정의 진술을 모두 들었는가요

답 : 들었습니다.

문 : 이정의 검찰청 출두문제로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가요

답 : 5. 22 오후 경 신도림동 사무실로 전민련 관련 변호사인 이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문 : 이모 변호사가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요

답 : 이모 변호사는 이정이 검찰청에 나갈 경우 영등하게 뒤집어 쓸 수 있으니 나가지 못하게 하여라고 하여, 본인은 어떻게 나가지 않을 수 있느냐고 하니, 소환장이 왔느냐 물어보더니 오지 않았으면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여 이정에게 그대로 전달하면서 문제가 없다면은 검찰청에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진술인 모두에게

문 : 이상 진술이 사실대로인가요

답 : 사실대로입니다.

문 :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요

답 : 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

한 대로 오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무인케하다.

진술자 김영순, 이 정

1991. 6. 24

서울 지방 검찰청

검사 임철

검찰주사(보) 박우연



수첩 조서(이정) 조서(이정) 조서(이정)

수첩 조서(이정) 조서(이정) 조서(이정)

姜씨 오늘 拘束수감

유서 [代筆] 여부 본격수사



姜씨 수사과정 목비권

법원서 진실 밝혀냈다

【서울 24일 특파원 특보】 유서(姜世) 씨의 유서(遺書) 작성 여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서 씨의 유서(遺書) 작성 여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서 씨의 유서(遺書) 작성 여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 24일 특파원 특보】 유서(姜世) 씨의 유서(遺書) 작성 여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서 씨의 유서(遺書) 작성 여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서 씨의 유서(遺書) 작성 여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全民聯, 결백증거 있다

【서울 24일 특파원 특보】 유서(姜世) 씨의 유서(遺書) 작성 여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서 씨의 유서(遺書) 작성 여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서 씨의 유서(遺書) 작성 여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수첩 조작경위 집중 추궁 洪양대질... 조사대상 15명

【서울 24일 특파원 특보】 유서(姜世) 씨의 유서(遺書) 작성 여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서 씨의 유서(遺書) 작성 여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서 씨의 유서(遺書) 작성 여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 24일 특파원 특보】 유서(姜世) 씨의 유서(遺書) 작성 여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서 씨의 유서(遺書) 작성 여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서 씨의 유서(遺書) 작성 여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遺書의혹 공경하게 가리라

— 遺書의혹의 가리라 —

【서울 24일 특파원 특보】 유서(姜世) 씨의 유서(遺書) 작성 여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서 씨의 유서(遺書) 작성 여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서 씨의 유서(遺書) 작성 여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 24일 특파원 특보】 유서(姜世) 씨의 유서(遺書) 작성 여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서 씨의 유서(遺書) 작성 여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서 씨의 유서(遺書) 작성 여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社說

【서울 24일 특파원 특보】 유서(姜世) 씨의 유서(遺書) 작성 여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서 씨의 유서(遺書) 작성 여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서 씨의 유서(遺書) 작성 여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社說

【서울 24일 특파원 특보】 유서(姜世) 씨의 유서(遺書) 작성 여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서 씨의 유서(遺書) 작성 여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서 씨의 유서(遺書) 작성 여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법정에서의 「복합」

【서울 24일 특파원 특보】 유서(姜世) 씨의 유서(遺書) 작성 여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서 씨의 유서(遺書) 작성 여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서 씨의 유서(遺書) 작성 여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법정에서 "결백하리라" 출두합니다

【서울 24일 특파원 특보】 유서(姜世) 씨의 유서(遺書) 작성 여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서 씨의 유서(遺書) 작성 여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서 씨의 유서(遺書) 작성 여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진출두에 즈음하여

저는 오늘 검찰청에 자진출두합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결백하기에 당초부터 저의 길은 뚝뚝한 자진출두의 길밖에 없었습니다. 유서대필 용의자로 지목된 지난달 18일부터 지금까지 저는 이곳 명동성당에서 자진출두 시기를 늦추면서 국민 앞에 저의 결백과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는 저를 증거도 없이 범인으로 단정하는 엄청난 언론 공세에 밀려 마지막 벼랑 끝까지 몰려갔던 제가 저의 양심과 진실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안간힘이었습니다.

그간 검찰은 '과학수사'의 이름을 빌린 교묘한 언론조작을 통해 저를 故 김기철동지의 유서대필자로 단정하여 저와 가족에게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안겨 주었으며, 지난 5월 26일에는 드디어 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지명수배가 단행되었습니다. 참고인들에 대한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수사와 그 가족들에 대한 협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 사건의 진실을 가리기 위하여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의 도덕성에 먹칠을 하기 위하여 저를 자살방조범으로 몰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억지 수사를 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결과 필연적으로 저에 대한 강압과 협박 폭행과 고문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한 탈법적인 수사가 진행되리라는 것은 눈앞의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조작기도에 협조할 생각이 조금도 없으며 검찰의 모든 조사에 대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묵비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제가 검찰에 출두하는 것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그동안 모든 진실을 말해왔습니다. 만일 검찰이 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처 무슨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것이나 또다시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면 그것은 저에 대한 강압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한때 저는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중의 하나이며 친구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조작사건의 소용돌이 속에서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한 홍성은양이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전제로 자진출두하겠다는 생각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의 자진출두가 홍성은양의 자유를 하루라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홍성은양은 최근 사실상 수사기관에 의해 억류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참고인을 불법수사하고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억류하는 것은 사건을 조작하려 한다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유례없는 인권침해입니다. 홍성은양은 즉각 자유로워져야 하며 사건의 진상을 공개적으로 증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미 모든 사실은 저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밝힌 진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수많은 증거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저에 대한 재판은 실은 검찰의 부도덕함과 타락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내리는 재판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국민의 공복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는 재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피고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를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법정에서 설 것입니다.

자료 가-3-29

자료 가-2-55 (동아, 91년 6월 24일)

「代筆」-「결백」공방 장기화될듯

羨慕勸사 37일만의 피력수사

대필자 강기훈, 유서대필자의 자백이 뒤따르지 않으면 유서대필 용의자로 지목된 지난달 18일부터 지금까지 저의 길은 뚝뚝한 자진출두의 길밖에 없었습니다. 유서대필 용의자로 지목된 지난달 18일부터 지금까지 저는 이곳 명동성당에서 자진출두 시기를 늦추면서 국민 앞에 저의 결백과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는 저를 증거도 없이 범인으로 단정하는 엄청난 언론 공세에 밀려 마지막 벼랑 끝까지 몰려갔던 제가 저의 양심과 진실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안간힘이었습니다.

그간 검찰은 '과학수사'의 이름을 빌린 교묘한 언론조작을 통해 저를 故 김기철동지의 유서대필자로 단정하여 저와 가족에게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안겨 주었으며, 지난 5월 26일에는 드디어 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지명수배가 단행되었습니다. 참고인들에 대한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수사와 그 가족들에 대한 협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 사건의 진실을 가리기 위하여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의 도덕성에 먹칠을 하기 위하여 저를 자살방조범으로 몰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억지 수사를 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결과 필연적으로 저에 대한 강압과 협박 폭행과 고문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한 탈법적인 수사가 진행되리라는 것은 눈앞의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조작기도에 협조할 생각이 조금도 없으며 검찰의 모든 조사에 대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묵비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제가 검찰에 출두하는 것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그동안 모든 진실을 말해왔습니다. 만일 검찰이 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처 무슨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것이나 또다시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면 그것은 저에 대한 강압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한때 저는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중의 하나이며 친구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조작사건의 소용돌이 속에서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한 홍성은양이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전제로 자진출두하겠다는 생각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의 자진출두가 홍성은양의 자유를 하루라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홍성은양은 최근 사실상 수사기관에 의해 억류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참고인을 불법수사하고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억류하는 것은 사건을 조작하려 한다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유례없는 인권침해입니다. 홍성은양은 즉각 자유로워져야 하며 사건의 진상을 공개적으로 증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미 모든 사실은 저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밝힌 진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수많은 증거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저에 대한 재판은 실은 검찰의 부도덕함과 타락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내리는 재판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국민의 공복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는 재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피고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를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법정에서 설 것입니다.

강기훈